

부패신고 1398

정부대표전화 110

국민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ACRC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청렴@세상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0910

2010 vol.16



유난히 무덥고 습했던 여름이었다.
끝자락에는 태풍이 불었고,
많은 나무들이 푹푹 바람에 꺾였다.
그러나 어느덧 가을빛이 물들고 있다.
살아남은 가지들은
예년의 그 곱디 고운 자태로
있들을 조심스레 변색시키고 있다.

- 남정우 -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0.0910 vol.16

기획°특집

기획 특집	04	억울함 없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현장 출동 국민 속으로!'
ACRC Inside1	08	청렴한 세계를 위한 G20 정상들의 약속
ACRC Inside2	10	젊음과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청렴한 세상
Global ACRC	14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희망°공감

다시 찾은 권익 & 다시 만난 사람	18	다시 찾은 일상, 다시 찾은 웃음 - 경찰민원과 하왕수 조사관
만화로 보는 고충처리	22	축산폐수 고질민원 왕궁단지, 친환경마을로 탈바꿈
행정심판 다시보기	24	강도상해죄의 전과자, 국가유공자 될 수 있을까
현장에서 찾은 희망	26	지구는 지금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기자의 취재노트	29	SBS 뉴스추적 <현장 고발 - 불법석유가 판친다>

행복°누림

희망 인터뷰	32	젊은 목수 명장, 이정섭
우리가 먼저	36	청렴 위인을 찾아, 청렴의 길을 묻다
브라보! 대한민국!	40	맛과 인정으로 빛은 참 좋은 '우리 떡'
생활법률 110	44	인터넷 상거래에서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법!!!
통째로 보는 책 한 권	46	전 세계의 석학들은 왜 정의에 주목하는가?
ACRC News	48	
편집 후기	50	



억울함 없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현장 출동 국민 속으로!'

과거에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해소연하는 창구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신문고 제도가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억울함이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다.

글 · 이용규 사진 · 최일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목소리를 또렷이
담아낼 수 있도록 방송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제작진에게 주어진
중대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동신문고 현장에서 인터뷰 중인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박양규 조사관

지난 3월 KTV 봄 개편과 함께 신설된 <현장출동 국민 속으로>는 국민 생활의 곳곳을 살펴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와 규칙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안과 현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억울함이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정부와 국민 상호 간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출동 국민 속으로> 제작 현장을 찾아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시청자가 참여하는 국민 소통 프로그램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간이 철렁 내려앉는다니까. 짐을 싣고 내려오다 보면 죽을까봐 겁이 나요. 오래 살고 싶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나?”

VCR에서 흘러나오는 영상은 경북 군위

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제기한 민원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리가 너무 오래되고 위험하여 통행에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붕괴 위험성까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다리는 1970년 새마을 운동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문적인 설계과정 없이 마을 주민들이 모여 가설한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던 것.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루어진 것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마을 주민들이 나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조사관이 현장을 조사하였다. 결국 노화된 교량으로 인해 차량통행과 경운기 출입이 불편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교량을 철거하고 확장해서 재 설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현장출동 국민 속으로>의 ‘Let's GO 신문고’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 신문고, 방문상담, 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고충 및 민원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코너로, 실제 민원을 제기한 이들을 찾아 민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과정을 통해 민원이 해소되었는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8분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제작진은 물론, 권익위 담당 조사관, 해당 지자체 관계자 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접 발로 뛰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동안 몇 번이나 민원을 넣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는데, 이번 방송을 통해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지자체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또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라는 KTV 문지현 담당 프로듀서의 말이다.



〈현장출동 국민 속으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현장출동 국민 속으로〉 녹화를 준비 중인 문지현 프로듀서

사회적 약자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한 해 권익위에 제기되는 민원만 해도 2만 8천 건 이상. 그 가운데 사회 취약 계층의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제작진은 전국을 찾아다니며 민원인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장출동 국민 속으로〉는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각종 민원 해결방안을 소개하여 국민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또 사회 곳곳의 생활 민원을 살펴봄으로써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과 공감을 유도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KTV 문지현 프로듀서는 민원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높아진 권익위의 위상과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말한다. 지자체 해당 부처와 권익위 담당 조

서관이 조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또한 현장을 몸소 다니면서 느낀 점 가운데 하나라고.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편성 기간이 길지 못했다. 민원인들이 각 정부 부처를 일일이 찾아가 민원 사례를 접수하다 보니,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해 아이템 발굴에 한계가 오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 지금은 권익위가 프로그램 제작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 민원 사례 및 민원인 섭외에 ‘숨통’이 트여 제작 여건이 과거에 비해 조금은 수월해진 것이 사실. 지금도

개인의 노출을 꺼려하는 민원인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그리 녹록치는 않지만, 본 방송이 나가고 난 후 민원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피드백을 들을 때 ‘방송쟁이’로서 느끼는 보람과 긍지는 기대 이상으로 크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다

〈현장출동 국민 속으로〉는 최근 10월 개편을 맞아 총 3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국민에게 친근한 생활밀착형 행정과 국민권익 보호의 필요성을 보다 더 강조했다. 각각의 코너를 살펴보면, 실제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을 찾아 권익위 조사관과 함께 직접 민원인을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Let’s GO 신문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나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필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쑥쑥 바꿔봅시다’, 민생현장 곳곳을 찾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줄 ‘소비자 탐방대’가 방송되고 있다.

“앞으로도 보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계층을 찾아다니며 그 분들의 고충을 담아내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특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목소리를 또렷이 담아낼 수 있도록 방송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제작진에게 주어진 중대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자’를 기본 화두로,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는 방송, 〈현장출동 국민 속으로〉.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억울함이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보다 깊숙이 국민 속으로 출동하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 🌈

〈KTV 현장출동 국민 속으로〉 MC 심중환의 말말말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 그리고 기억에 남는 사연

방위병으로 근무를 하다가 부대 복귀를 위해 철길을 건너던 중 두 다리를 잃게 된 민원인이 자신이 국가유공자 자격이 되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다 지난 해 겨우 신청을 했었죠. 하지만 증거부족으로 등록이 되지 못했던 민원인! 권익위의 끈질긴 조사 결국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게 된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최종완결까지는 아직 몇 개의 과정이 남았다고 하네요. 평수가 적은 서민아파트지만 공사가 완공되면 유명브랜드의 대형건설사의 이름을 달기로 사전에 약속받았으나 시행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권익위가 중재에 나서 원래 약속대로 브랜드 이름을 되찾은 사건 등등……. 참으로 많은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8개월 가량 방송을 진행하면서 힘없는 서민들과 가난한 이들이 정말 억울하고 서러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대화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보다 성숙한 자세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민원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민원 자체가 줄어들기를 기대해봅니다.

올해는 한국이 세계 12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 맞는 G20정상 회의를 개최하는 해입니다. 또한 국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한 해이기도 합니다. 품격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억울함 없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억울함이 없는 희망찬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 ‘현장출동 국민 속으로’ 팀은 더 많은 민원해결 소식을 담고,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쑥쑥 바꿔봅시다’ 코너의 한 장면



‘소비자 탐방대’ 코너의 한 장면



‘Let's go 신문고’ 코너의 한 장면

청렴한 세계를 위한 G20 정상들의 약속

- G20 차원의 반부패 논의 본격화



오는 11월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20여 국가의 정상과 국제기구의 수장을 대표하여 의장국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전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이 G7이 아닌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까닭에 개발도상국의 점진적인 발전 모델이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대치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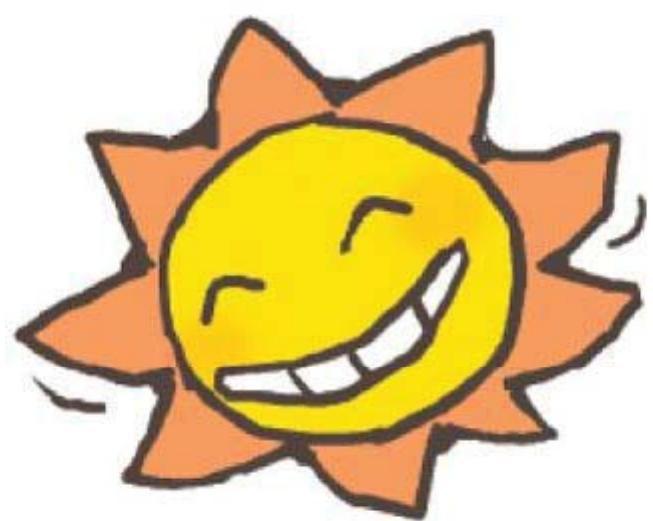
글 · 황민아 국제교류담당관실 정리 · 전체련 편집실



G20은 본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창설된 것으로 한시적 협의기구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작년 9월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시,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그 중요도가 격상됨에 따라 G20 정상회의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G20은 향후 경제·금융 분야 뿐 아니라 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반부패 등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대부분의 이슈에 관해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글로벌 반부패 논의를

집대성할 G20 반부패 실무 그룹



부패문제가 경제위기 및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국제사회의 공통적 인식 하에 G20 차원의 반부패 논의가 보다 확대되고 있다.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부패 행위로 인해 개발도상국가로부터 불법적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 6월 제4차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반부패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권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G20 반부패 실무 그룹(Working Group)'이 설치되어 G20 반부패 행동 계획(Action Plan)을 앞서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반부패 의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반부패 실무 그룹의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아, 국제적인 반부패 논의에 있어 그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행동 계획에는 UN반부패 협약, OECD뇌물방지 협약 등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부패 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 피난처 제공 금지, 은닉자산 회복 및 지원 등 각국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패방지·척결을 위한 부패방지기구 및 법 집행기관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국 대표들은 공동의장국 측에서 마련한 반부패 행동 계획 초안에 대하여 컨퍼런스콜(전화회의) 및 대면회의를 통해 1차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후, 서울 G20 정상회의 시 그간 집약된 다양한 의견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권익위의 우수 청렴 정책을

널리 알려 함께하는 성장을 꾀할 G20 정상회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었던 부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는 국가로서, 반부패 실무 그룹 논의 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자(Consensus Builder)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발도상국의 단계적인 협약 이행 지원,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반부패 역량 배양 지원 등을 강조함으로써 개도국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각국 간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모범사례 발굴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부패 문제는 더 이상 일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부탄 및 방글라데시에 반부패 기술을 전수하였다.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몽골과의 반부패 MOU 체결을 통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아시아 지역의 반부패 선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권익위는 반부패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우수한 부패방지 정책을 널리 알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을(Shared Growth beyond Crisis)’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위기 이후 공고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가 선결 조건이다.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G20 각국 정상들의 약속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부문의 관심과 주목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



점음과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청렴한 세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온 국민에게 청렴과 반부패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기 위해 ‘청렴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의 청렴정신을 높이기 위해 결성된 ‘대학생 청렴홍보단’의 활약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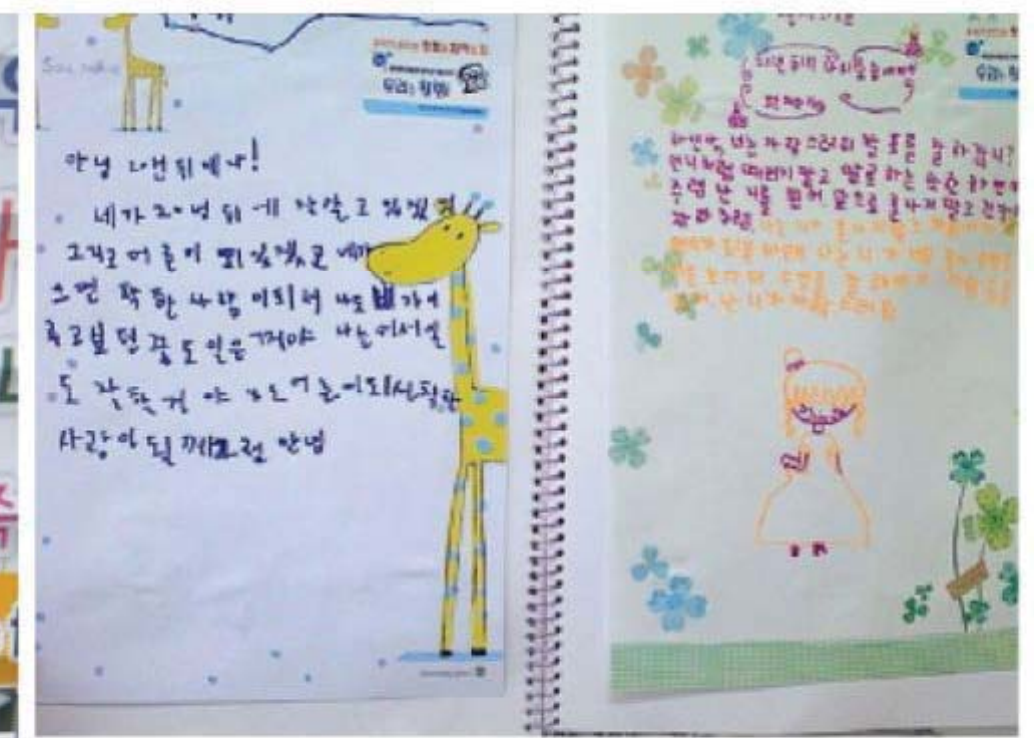
글·박수진 권익위 블로그 기자 사진·조항진 사진 제공·대학생 청렴홍보단 각 팀 일동



해운대 해수욕장 역사에서 청렴홍보 활동에 한창인 '참인' 팀



‘우리는 청렴 아이!’ 팀의 청렴홍보 활동



전국을 청렴으로 물들인 지역 맞춤형 젊은 홍보~

대학생 청렴홍보단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선발된 20개 팀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6개월간 지역 맞춤형 청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각각의 팀들은 ‘청렴’을 주제로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가득 담긴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고 전국 각지에서 그 지역에 맞는 캠페인과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학생 청렴홍보단이 이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기까지 그간의 노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지역 균일 할당, 지역 맞춤형 자율홍보라는 값진 성과를 올렸지만, 전국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던 지난해 대학생 청렴홍보단을 대폭 개선하였다.

2010년 대학생 청렴홍보단은 지난해에 비해 팀의 수를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했다. 반부패 관련 워크숍, 심포지엄 참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음은 물론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한 팀은 청렴선진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학생 청렴홍보단은 지난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POSCO, KT, 수자원공사,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JDC) 등 6개의 윤리경영 모범 기업을 방문해 향후 기업의 생존전략이 될 ‘윤리경영’을 배우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기업 방문을 통해 각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미래 비전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기업의 운영실태와 작업환경을 답사하고 직접 체험해봤다.

또한 각 팀들이 기업에 청렴홍보 활동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상호간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서울, 경기에서부터 멀리 제주까지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지속적이고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학생 청렴홍보단. 우여곡절 끝에 청렴의 참의미를 찾아가는 이들의 ‘생생한 청렴홍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가정에서 시작해 세계로 퍼져 나가는 ‘우리는 청렴’ !!!

‘가족이 만들어가는 청렴활동’, ‘옴부즈만 청렴i 인터뷰’, ‘글로벌 청렴활동’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서울지역에서 활동 중인 우리는 청렴i팀. 우리는 청렴i팀은 지난 6월 북서울숲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청렴가훈 만들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20년 후의 청렴한 나에게 편지쓰기 등 가족청렴활동 캠페인을 열었다. 여기에 서울시청 감사담당관과 시민 단체 간사 등 청렴과 참여를 함께 실천하는 이들을 인터뷰하면서 몸소 청렴을 체득하기도 했다. 또한 청렴활동을 국제적으로 넓히기 위해 지난 7월에는 방글라데시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후 청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다음 달에는 노원 영어마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영어로 진행하기도 했다.

우리는 청렴i팀은 청렴활동을 계획하고 예산을 짜는 것에서부터 장소 섭외, 준비물 만들기 등을 진행하면서 어느 과정 하나 고단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행사를 마친 후 힘든 만큼 해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은 몇 배로 더 컸다고.



'참인' 팀의 청렴홍보 활동 활약상

'참인', 대한민국에 청렴한 바람을 일으켜~

부산지역 대학생 청렴홍보단 참인팀. 이들은 활동 초기인 6, 7월은 청렴문화 조성기로 전반적인 계획을 구체화하는 시기로 삼았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청렴캠프를 열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청렴한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겠다는 의미의 핸드프린팅 행사를 열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의 청렴문화 확산기로 정해 시민들에게 청렴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했다. 부산 장애인 고용공단과 연계해 Clean wind & Clean mind(청렴바람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청렴한 마음을 일으키다)라는 슬로건 아래 해운대 지하철과 해수욕장에서 캠페인을 열었다. 지하철역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로 정직한 청렴시민을 선발하고 부정부패를 상징하는 '부정이'를 만들어 청렴 공으로 맞추는 이벤트도 함께 벌였다. 참여한 시민들에게 부정부패는 내손으로 척결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참인팀에게 9월은 청렴 전파의 절정기였다. 부산에서 벌어진 여러 축제와 국제경기대회, 대규모 행사와 연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 다니며 청렴홍보를 진행하였다. 부산시내 모 대학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행사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참인팀. 이들은 직접 학교비리 청문회에 참여해 총학생회 학생들에게 청렴의식과 실천을 촉구했다. 이 청문회는 수많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청렴은 우리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회적 정의임을 공감하게 한 자리가 되었다.

참인팀의 청렴홍보는 온라인에서도 계속되었다. '청렴 실천제안 캠페인 하자하자'를 현재 블로그에서 진행 중이며 스마트폰 사용자를 겨냥해 만든 어플리케이션도 제작 중이다.

지금은 이처럼 열정적으로 청렴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처음에는 여러 단체들과 협조해 캠페인을 벌이고 이벤트를 연다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어려웠다는 참인팀. 게다가 '청렴'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많은 이들에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손으로 뭔가 만들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치열한 열정과 깨끗한 사회에 대한 염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고 미소지었다.

‘청바지’의 뜨거운 열정에 청림제주로 거듭나……

우리나라의 끝 제주도에서도 멋지고 아름다운 청림홍보 활동이 펼쳐지고 있었다. ‘청림하고 바른 지역을 만들자’라는 의미의 청바지는 1기가 선발되지 않았던 제주에서 사실상 최초로 청림을 홍보하는 팀이기도 하다.

지난 6월 남아공 월드컵 청림홍보와 함께 국제태권도대회 심판진과 참가선수들에게 공정한 시합을 당부하는 청림캠페인은 이들에게 청림홍보의 첫 단추가 되었다. 그 후 7월에는 청바지팀 블로그를 통해 모집된 대학생 동기들과 함께 제주 올레 1코스를 완주하면서 주변 상인과 관광객, 제주 도민에게 청림을 전파했다. 이어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8월에는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청림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명소와 공항 등에서 청림서약서를 받았다. 더불어 식당과 숙박업소를 돌며 청림한 운영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펼친 ‘청림 제대로 알기’ 캠페인은 재미있고도 유익해 제주지역방송 KCTV에 방송될 정도였다. 스스로도 청림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청바지팀원들. 처음엔 사람들에게 외면당해 의기소침해지기도 했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청림홍보활동을 통해 ‘청림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설 새 없이 발품을 팔며 청림홍보에 전념 중이다.

청림으로 가는 길을 잇는 소통의 다리가 되어~

이처럼 청림홍보를 나선 대학생 청림홍보단의 고민과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오는 12월에는 각 팀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활동보고 대회를 열어 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시상식도 갖는다. 그동안 펼쳐왔던 청년들의 활동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내년도 계획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온 국민이 청림으로 가는 길에 놓인 소통의 다리가 되어 줄 대학생 청림홍보단의 아름다운 모습을 앞으로 계속 지켜볼 수 있길 기대한다. 🌍



제주도를 푸른 청림의 물결로 물들인 ‘청바지’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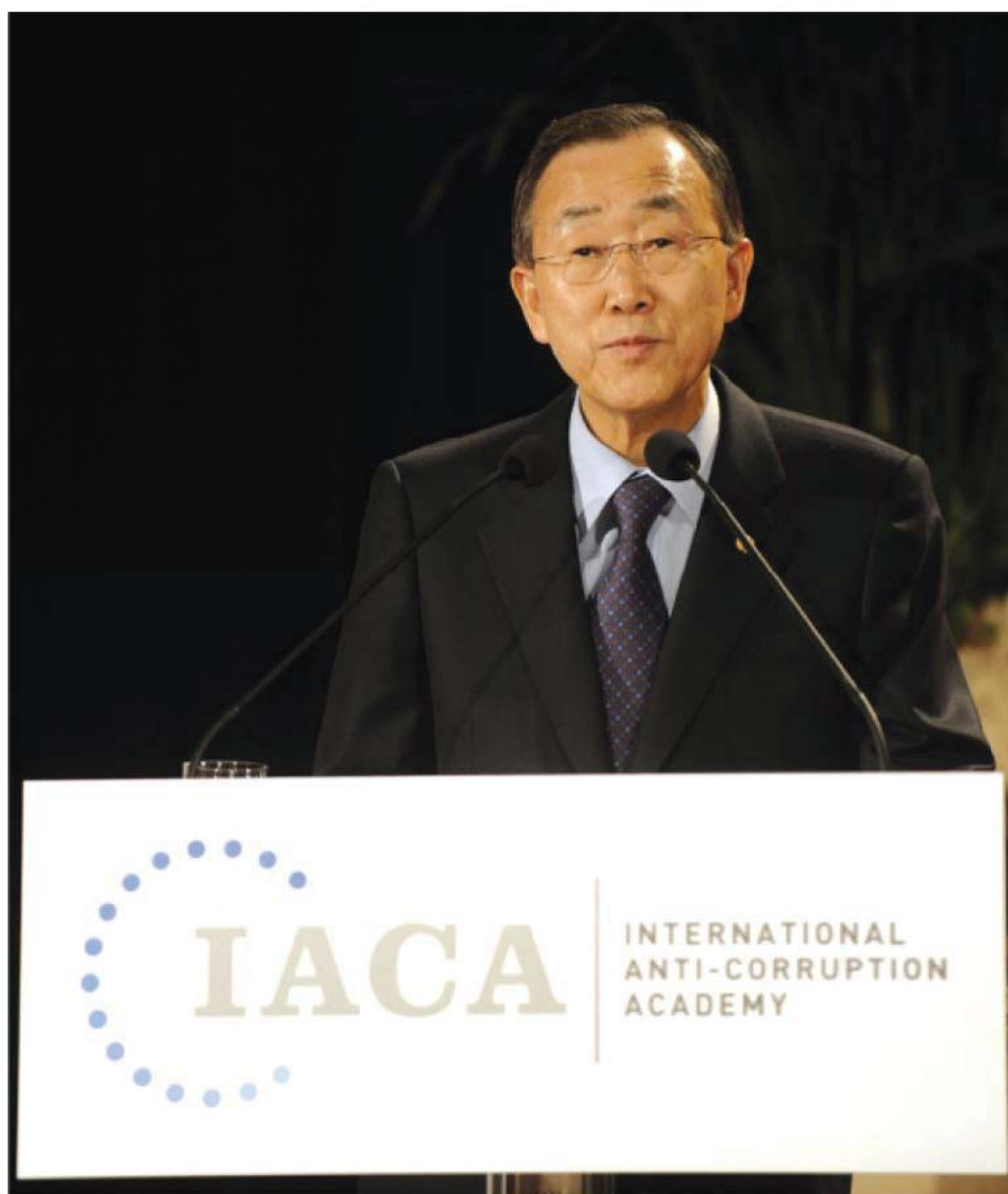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는 반부패 분야의 연구 및 훈련을 담당하는 선도적인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탄생한 반부패 관련 글로벌 교육기관이다. 현재 IACA는 UN마약범죄국(UNODC), EU부패방지총국(OLAF), 오스트리아 정부 등의 주도 아래, 선진 청렴 사회 실현을 위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모습을 만들고자 고군분투 중에 있다.

글 · 곽형석 청렴총괄과장 정리 · 전채련 편집실



비엔나의 호프부르크 왕궁에서 개최된 IACA 창립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이영근 권익위 부위원장



IACA 창립총회에서 연설 중인 반기문 UN 사무총장



폴란드 부패방지국(CBA) Pawel Wojtunik 국장과 기념패를 교환하고 있는 이 부위원장



국제투명성기구(TI)의 Huguette Labelle 회장에게 한국의 반부패 현황을 설명하는 이 부위원장

IACA는 부패 예방과 부패신고처리 및 국제공조 등 UN반부패 협약의 조항에 근거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UN반부패협약의 효율적 이행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2009년 12월 24일에 개최된 UN총회에서는 IACA의 설립을 환영하고 그 역할에 주목한 바 있다. IACA의 운영은 Martin Kreutner 오스트리아 내무부 반부패 특별고문을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8명으로 구성된 국제 수석자문위원회(International Senior Advisory Board), 9명으로 구성된 국제학술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cademic Advisory Board)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패 방지를 위해 새롭고도

총체적인 접근에서 탄생한 IACA

IACA는 2010년 10월 개원을 앞두고 부패 방지 및 척결과 관련된 주요 아젠다를 논의하고, 아카데미의 설립 현황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 각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상에서 현실로: 부패 방지를 위한 새롭고 총체적인 접근법”(From Vision to Reality : A New and Holistic Approach to Fighting Corruption)이란 주

제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영근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대표로 4명의 대표단이 파견되었다.

창립총회는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120개 UN 회원국 장·차관급 정부 대표단, 25개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및 민간부문 대표 등 1천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반기문 UN사무총장도 참석하였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반부패 아카데미 창립은 국제사회 반부패 척결 노력의 이정표로 평가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아카데미를 통해 부패 문제에 대처할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영근 부위원장 또한 기조연설에서 반부패 아카데미 창설은 부패 척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대표하는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될 것이며, 권익위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패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임을 역설하였다.

이 부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IACA 운영위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IACA 창립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을 지지하고, 권익위의 다양한 부패예방 정책과 아시아 지역 개도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 지원 사업 등 그간의 다양한 활동상을 소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후 IACA를 통해 부패방지 정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개도국의 반부패 역량 배양을 함께 지원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UN반부패 협약 당사국 총회 사무처장 Dimitri Vlassis에게 권익위 홍보물을 설명하고 있는 이 부위원장

대해 IACA 운영위원장 역시 권익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IACA 운영위원회 위원이자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사무처장인 Dimitri Vlassis와 IACA의 국제학술자문위원인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장 Kassim bin Mohamed를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권익위의 반부패 정책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수 인력을 파견하는 다양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권익위의 반부패 교육연수원 설립 계획에 맞춰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연수원(MACA)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보다 긴밀한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IACA 창립총회에서 드러난 반부패 관련 글로벌 정세

이번 IACA 창립총회 참석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국제적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첫째, 반부패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호 공조협력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동안 개별 국제기구 또는 국가 대 국가의 양자 관계 위주로 진행되던 반부패 협력 사업이 국제기구 간 협력과 다자간의 양상으로 종합화 및 체계화 되는 추세이며, 반부패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 및 훈련은 UNODC, EU 부패방지총국 등이 선도하고 있다.

둘째, 반부패 개념의 확장과 예방 정책 보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패가 인간의 행복 추구를 저해하는 장애 요인이라는 인식 하에 그 범위가 인권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부패 방지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부패예방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제사회의 이슈로 등장하였다.

셋째, 반부패 활동의 표준화 등 시스템적 접근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다양한 반부패 정책과 활동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을 통해 반부패 활동을 표준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IACA라는 교육기관을 창구로 각 국가의 부패 현상에 맞는 정책과정을 개설하고 관련 연구 및 훈련을 실시하려는 노력이 적극 시도되고 있다.

IACA 창립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은 IACA 운영에 대한 참여 의지를 적극 알리고, IACA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향후 역할 및 참여 방안에 대한 우호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었다. 권익위는 아카데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반부패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위원회의 반부패 수범 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교육 등 정책 추진 경험을 살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 국제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국민권익위원회

희/망/공/감

다시 찾은 권익

&
다시 만난 사람

만화로 보는 고충처리

행정심판 다시보기

현장에서 찾은 희망

기자의 취재노트

희망 인터뷰

18

다시 찾은 일상, 다시 찾은 웃음
- 경찰민원과 하왕수 조사관

22

축산폐수 고질민원 왕궁단지, 친환경마을로 탈바꿈

24

강도상해죄의 전과자, 국가유공자 될 수 있을까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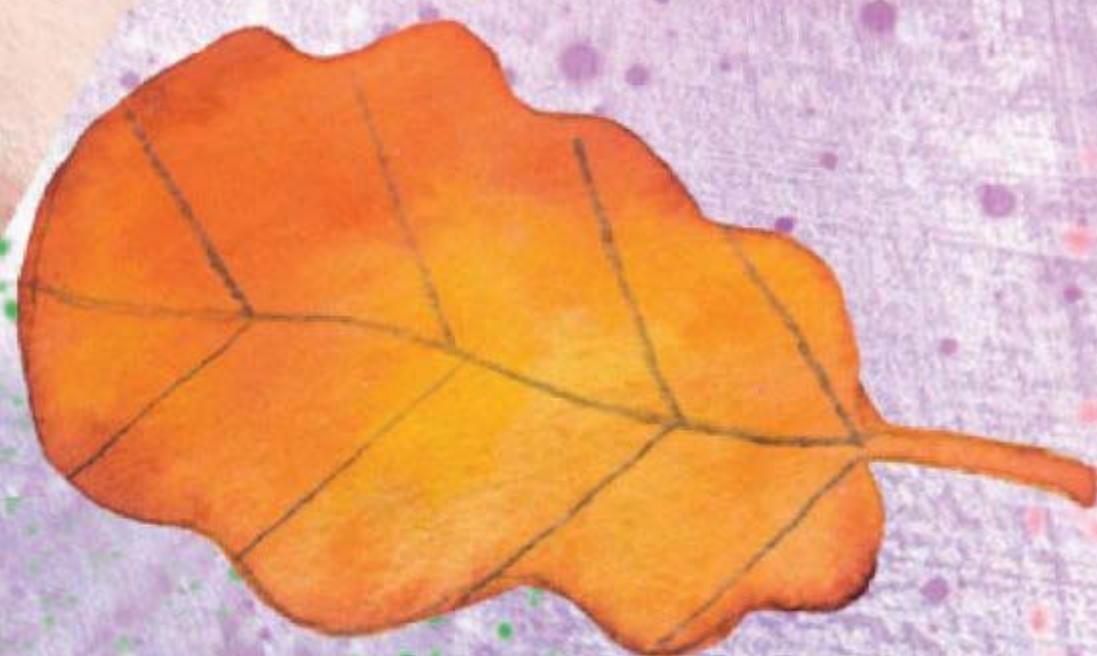
지구는 지금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9

SBS 뉴스추적 <현장 고발 - 불법석유가 판친다>

32

젊은 목수 명장, 이정섭



다시 찾은 일상, 다시 찾은 웃음

경찰민원과 하왕수 조사관

연간 2,5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경찰민원과는 교통 분야와 형사 분야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교통분야 민원 중에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민원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민원도 눈에 띈다. 권익위 덕분에 웃음을 되찾은 민원인과 함께 ‘교통민원 해결의 달인’ 하왕수 조사관을 만나 보았다.

글·편경애 편집실 사진·최일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

2003년 6월 3일이었다. 어느 때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난 권홍집 씨는 평소와는 다른 기분을 느꼈다. 다른 날과는 달리 속

이 매스껍고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밤 마신 술 때문인가 싶어 무심히 참아내며 회사로 향했다. 일이 일어난 건 그날 오전, 치과를 찾았을 때였다. 보철치료



를 받던 중 갑자기 매스꺼움이 심해지면서 걷다가 힘들었다. 치료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권 씨는 진료대에서 내려와 잠시 주춤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뇌경색’이라는 청천벽력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었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그날 병원에 입원을 했다. 다행히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쉬웠다. 하지만 위기는 한 번으로 지나가지 않았다. 밤새 여러 번의 통증이 찾아왔다.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때문에 어느 때보다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다. 권홍집 씨는 보름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고 부축을 받으며 퇴원을 했다. 병원에서 하는 재활치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재활치료를 스스로 하기 시작했다. 절룩거리긴 했지만 아파트 단지를 여러 차례 걸으며 걷기운동을 하고 헬스클럽에도 나갔다. 4개월의 시간이 지나자 겨우 지팡이를 짚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밤이 주고 간 후유증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병고는 이겼지만 검사는 매년 ‘골치’

그런 권홍집 씨에게 2007년 어느 날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제1종과 제2종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적 장애가 있을 시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에게 느닷없이 ‘수시적성검사’ 통지가 날아온 것이다. 그가 신청한 산재보험의 내용이 경찰청으로 통보되면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된 것이다. 당시 그에게 수시적성검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뇌경색이 일어난 4개월 후부터는 운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걷는 것보다는 운전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했다. 권씨는 기왕이면 제대로 검사를 받자는 생각에 보조기구가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신체장애인 운동능력평가까지 신청을 했다. 뇌경색 이후 장애3급 판정을 받았지만 신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이다. 운동능력평가를 합격한 후 제반요건을 모두 갖추고 수시적성검사에 임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리고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신체검사서)와 사진, 수입인지를 준비해 수시적성검사에 신청했다. 그런데 수시적성검사 결과는 황당했다. ‘수시관찰’이라는 것이었다. 합격할 때까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수시적성검사 담당에게 ‘수시관찰’ 판정의 이유를 묻자 ‘알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고통을 안겨준 세 번의 검사 결과

2008년에도 그 일은 반복되었다. 의사의 진단서와 사진, 수입



인지를 준비해 수시적성검사에 다시 임했지만 결과는 또 ‘수시관찰’이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면허시험장을 옮기고, 담당자에게 운전가능 여부를 재확인시키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더했지만 다시 수시적성 검사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비용이 들어가는 진단서를 매년 첨부하고, 시간을 내서 검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자 권홍집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까지 첨부한 상태에서 계속 ‘수시관찰’로 판정되는 것에 항의했고, 필요하다면 면허시험장에서 지정한 의사에게 신체검사를 받겠다는 의견까지 개진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요구에, 수사를 받는 입장도 아닌데 진술서 작성이 웬 말인가 했지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성의껏 작성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은 작년과 같았다. 억울한 마음에 신문고를 두드렸지만 경찰청 민원실에서 돌아온 성의 없는 대답에 또 한 번 좌절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싶었고, 모두가 이런 처분을 받는 건 억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갈 결심이었다.

권익위 찾아 다시 찾은 일상

권홍집 씨의 민원을 접수한 사람은 경찰민원과 하왕수 조사관이었다. 2006년 12월에 경찰민원과가 출범할 당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류한 그는 경찰·교통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통전문 조사관이었다. 권홍집 씨의 사연을 들은 하 조사관, 처음엔 고개를 가웃했다. 민원해결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수시적성검사 판정은 경찰 내부에서도 시험장마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었고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었다. 이번 일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불공정함을 호소하는 문제인 만큼, 재량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우선 법령을 자세히

검토했다. 그리고 운영사항에 관련된 지침을 조사하다가 실마리를 찾았다. ‘수시관찰’이라는 판정은 법령과 지침 상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합격, 불합격만을 판단하게 돼 있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위법’이라는 사실을 제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권씨가 후천적 신체장애를 갖게 된 경우이지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신체전문가(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3년 동안 계속 수시관찰로 판정이 내려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알고 보니 운전적성판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면허시험장의 행정 경찰관 등 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었다. “세부지침 상 교통전문가, 신체전문가로 위원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편 의상 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는 하왕수 조사관은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6월 시정권고를 하게 되었다. 민원인에 대한 재검사와 운전적성검사판정위원회의 구성을 전문가로 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7월에는 권홍집 씨가 직접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출석해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물론 판정은 ‘합격’이었다. 그제야 민원인 권홍집 씨는 다시 웃을 수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는’ 조사관

“민원인들은 억울한 마음이 앞서서 처음부터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속에서 답을 찾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묵묵히 듣는 일이 먼저인 거죠.” 라는 하왕수 조사관은 “우리 권익위 조사관들 모두가 민원인 얘기를 먼저 듣고 시작한다.”며 툄툄한 웃음을 쏟아냈다.

법이나 제도를 잘 모르거나 절차를 모르고 억울함만 안고 오는 민원인들도 많다. 그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처음부터 하는 얘기를 다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게 하 조사관의 얘기다. 권홍집 씨가 하 조사관에게 고마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들어주는 일’이었다. 자칭 ‘급한 성격의 소유자’인 권홍집 씨는 억울한 마음에 털어 놓는 얘기를 자세히 듣고 때로는 반대되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시해 주는 하 조사관의 태도에 화가 누그러지기도 했다고 한다. “국가기관에 가서 일을 볼 때 어려움이 부딪치면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객관적인 사실로 국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요.”라며, “어찌 보면 권익위가 있어야 할 정도로 민원이 많은 게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국가기관에서 잘못 처분한 일을 바로잡아주는 곳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는 권홍집 씨의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이다. 국민들에겐 ‘해결의 창구’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 때문에 하 조사관이 근무하는 경찰민원과는 가끔 웃지 못할 일들도 생긴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함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다.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어야 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권익위에 민원을 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고소, 고발, 진정 건을 경찰민원과로 들고 오는 경우나 경찰서에 가야 할 사건을 들고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민원인을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권익위를 ‘민원해결의 창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민원인의 편에서 이해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사실을 세세히 설명해주는 하 조사관 같은 전문가들이 있어 권익위를 찾는 이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전문성으로 뚫뚫 뚫친 경찰민원과

권홍집 씨의 민원을 시원하게 해결한 하왕수 조사관의 근무처, 권익위 신관에 위치한 경찰민원과를 찾았다. 경찰민원과는 경찰이 하는 처분 중에서 수사지연, 적법절차 미준수, 편파수사, 교통사고 조사, 교통안전 시설, 운전면허 민원 등 경찰·치안업무 전

반에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시정권고 등 제반 조치를 취하는 부서다.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자 경찰민원과의 든든한 수장인 김영주 과장은 “권홍집 씨의 민원을 해결한 하왕수 조사관은 교통전문가 출신으로 성실성으로 승부하는 조사관”이라며 “한 건을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이런 유형의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제도개선까지 하게 되었다.”며 만족해했다. 경찰민원과는 무엇보다 경찰 업무와 관련된 법 제도와 업무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전문위원을 포함해 14명인 경찰민원과 식구 대부분은 경찰민원과가 발족할 당시부터 법학 전공자이거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정예부대인 셈이다. 김영주 과장은 최근 단속의 사각지대가 돼 온 일명 ‘대포차’와 관련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되면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 사례를 들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잘못된 제도나 위해가 되는 요소들을 개선하거나 제거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원인의 얘기는 묵묵히 들어주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묵묵히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경찰민원과의 조용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

축산폐수 고질민원 왕궁단지, 친환경마을로 탈바꿈

- 권익위 이동신문고 민원제기... 정부 1천억원 투입 환경 개선기로...



» 50년 전 전과로 국가유공자 신청 거절 경기도 수원에 사는 A씨(80세). 지난 2009년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1952년 6월 해군에 입대해 6·25전쟁 중 총탄을 맞아 ‘우측 가슴 관통상’을 입었던 A씨가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에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는데 말이다. 실제로 A씨는 신청 당시 6·25전쟁에 참전해 부상을 입고 전역한 것이 인정되어 ‘전상군경 7급’을 인정 받았었다. 그러나 곧 결과가 뒤집혔다. 50여 년 전 저지른 강도상해죄가 문제가 되었다. A씨는 1961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던 것.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어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을 인정받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등록 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전과에 대한 뉘우침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A씨가 다시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함’을 인정받아야 했고, 수원보훈지청장에게 ‘뉘우친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류는 가정생활 및 이웃주민들과의 원만한 교류 관계를 확인하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연명 날인한 인우보증확인서, 지역사회발전사업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한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향후 올바른 사생활을 약속하는 본인 자술서 등이다.

A씨는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것은 질타 받아 마땅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이후 50여 년 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고, 주변인들에게 칭송을 들을 만큼 성실하게 지내왔다는 내용을 골자로 자술서를 썼다. 여기에 범죄를 저지른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50여 년 전, 아내와 어린 아이의 먹을거리조차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시절, A씨는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었다. A씨의 아내는 6살과 2살 된 딸을 키우며 A씨를 뒷바라지 했다. 힘든 상황에서 묵묵하게 믿어주는 아내를 보며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 누

강도상해죄의 전과자, 국가유공자 될 수 있을까

국가보훈처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예우와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훈처가 지정한 보훈대상자 중 하나가 ‘국가유공자’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6·25전쟁에 참전해 상해를 입었고 이후에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못 받은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대로라면 억울할 것이 없어 보이는 내용. 과연 A씨의 속사정은 무엇일까.

글 · 장병부



구보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생활했다. 이러한 사연이 참작되어서인지 A씨는 수감 후 1년이 조금 안 되어 사면되었고, 이후 진심으로 뉘우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

이러한 진심과 노력은 이웃에게도 전달되었다. 고령임에도 봉사활동에 앞장서며 이웃들의 모범이 되었다. 이웃들에게 A씨는 근면성실하고 자상하며 친절한 어른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을 기술한 본인의 자술서와 지역주민의 인우보증확인서를 수원보훈지청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결과는 뜻밖이었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A씨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대상자로 판정되었다.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억울함을 느낀 A씨는 급기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도움으로 국가유공자 자격 인정! 결과부터 말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결과를 냈다. 그 이유는 이렇다. 비록 A씨가 1961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구속 수감 중 사면된 점, A씨가 위 선고일 이후 약 5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범죄 사실이 없는 점, 수원보훈지청장이 A씨의 자술서 및 지역주민의 인우보증확인서 등을 참고한 후 A씨가 과거의 죄과에 대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가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아 수원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결하였다.

이에 따라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 '전상군경 7급'을 받은 A씨는 매달 40여만 원의 보훈급여를 받는 것은 물론 교육비 혜택,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 다양한 예우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Tip_국가보훈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국민들을 '보훈대상자'로 선정해 다양한 혜택과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상금을 지급하고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 보훈정책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보훈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제대 군인 등이 해당된다. 이중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이고, '국가유공자'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 신청 이전에 상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되는 전몰 군경,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상이 정도가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전상 군경,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군경,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이나 퇴직한 공상 군경,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등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된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등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가 해당되고, '5·18 민주유공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당시 부상당했거나 그 밖의 희생을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보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본인이 사망했을 시에는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접수해야 한다. 등록신청서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준비하면 된다. 자세한 준비서류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있는 '보훈지원' 페이지를 참고해 각각의 보훈대상 구비 서류를 체크해야 한다. 보훈대상에 따른 지원 제도도 각각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가보훈처에 문의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지구는 지금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물빈곤지수(WPI)는 29개 OECD 가입국 중 20위로, 1인당 연간 이용가능 담수량은 153개 국가 중 129위이다.



“물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5세 이하 어린이의 수는 한 해 180만 명으로 이는 20초마다 한 명씩 사망하는 셈이다. 오염된 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많다. 전 세계 환자 중 절반은 오염된 물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UNEP, 2010)

파란별 지구는 물로 뒤덮여 있다. 그 중 97%는 소금물이며 2%는 눈과 얼음에 갇혀 있다. 인류는 나머지 단 1%의 물로 마시고, 씻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물 사용량은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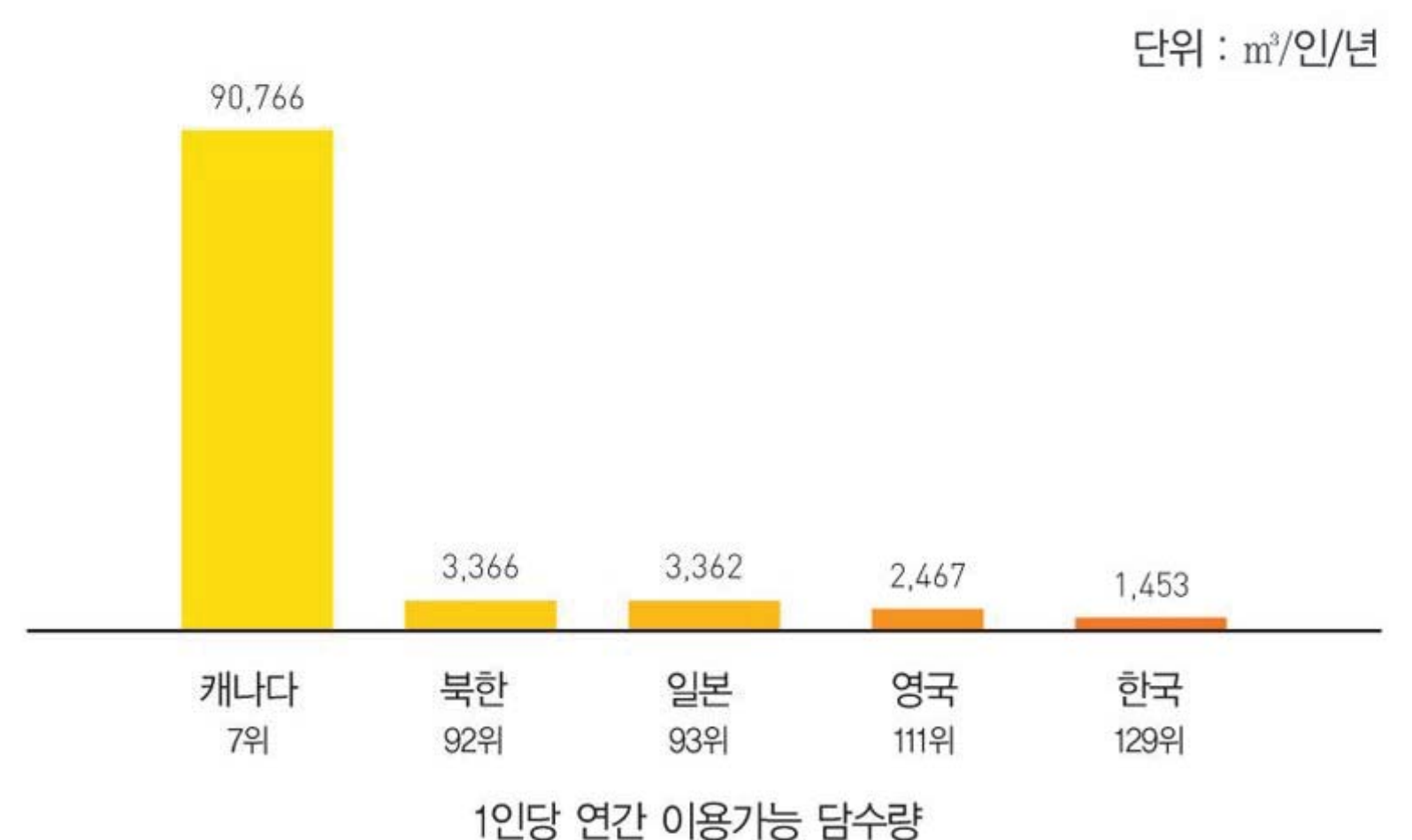
물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2008년 앨빈 토플러 등 저명한 학자로 구성된 세계미래회의(World Future Society)는 2025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물 부족을 겪게 되고, 10년 안에 ‘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물빈곤지수(WPI)는 29개 OECD 가입국 중 20위로, 1인당 연간 이용가능 담수량은 153개 국가 중 129위이다.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2008~2009년에는 48개의 시·군 7만 세대가 제한급수로 곤란을 겪었으며, 강원도 태백지역은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손수레로 물통을 직접 운반해야 했다. 또한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8억 m^3 , 2016년에는 10억 m^3 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물 부족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물그릇’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의 70%가 6월~9월 사이에 집중된다. 그중 42%는 증발 등으로 손실되고, 31%는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특히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인 우리나라는 빗물이 바다로 빠르게 유입된다. 하천경사가 급한 지리적 특성은 홍수를 유발하고 갈수기에는 물이 없어 하천수질 오염을 가중시킨다. 버려지는 우리의 소중한 물을 지키기 위해 물을 담아둘 수 있는 큰 ‘물그릇’이 필요한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빗물 재활용

– 빗물 모아 돈도 벌고 홍수도 막는다

홍수를 예방하고 부족한 수자원을 해결하기 위해 빗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도 빗물과 하수처럼 버려지는 물을 각종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한다는 내용의 ‘물 재이용 촉진법’을 제정했다. 공공기관 차원의 관광단지나 택지에도 하수를 재이용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대대적으로 ‘물 재활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그린 에너지 빗물 재활용 방법을 알아본다.

출처 · K-water 사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10월호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4배지만 UN이 지목한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하다. UN 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에 국민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은 1488m³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고, 2025년에는 1199~1327m³로 더 줄어든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이 계곡이 짧은 급경사 산으로 이루어져 저류가 어렵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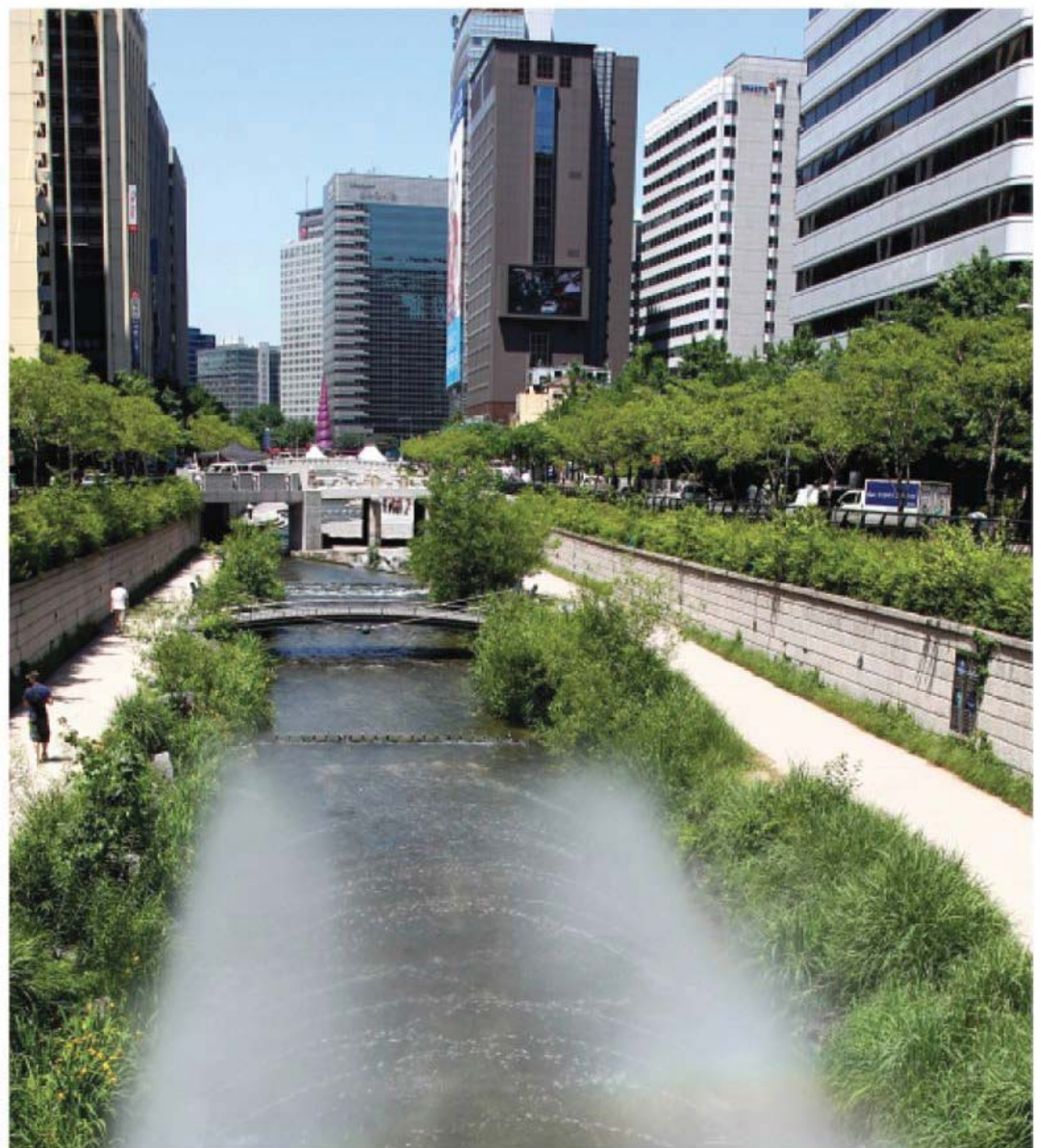
여기에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돼 물 부족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로 빗물을 저장할 산지가 많이 파괴되었고,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과 제방, 도로 포장, 환경오염 물질 배출 등에 의한 수질 악화와 물 부족은 가속화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빗물을 저장했다가 다시 활용하는 것이다.

인천 문학경기장은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해 빗물을 나무와 잔디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현재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야구경기장의 잔디는 2만 7641m²로, 하루 평균 약 130톤, 월 평균 3790톤의 물이 필요하다. 관리사업소에서는 스프링클러로 하루 두 번 20분씩 잔디에 물을 주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물은 빗물과 지하수로 충당한다.

‘물 부족 국가’가 아닌 ‘물 관리 부족 국가’

빗물 모아 돈을 버는 아파트도 있다. 서울 자양동에 위치한 스타시티는 4개의 옥상과 정원에서 빗물을 모은다. 모은 빗물로 정원 용수, 공용화장실 용수, 실개천 용수로 쓴다. 1년 동안 스타시티에서 재활용하는 빗물의 양은 4만 톤. 전체 가구가 1년간 쓰는 수도물(평균 20만 톤, 1억 6000만 원 상당)의 20%(3200만 원) 정도를 빗물로 충당하고 있다. 그래서 가구당 공동 수도료는 한 달에 200원이 넘지 않는다.

빗물 전문가 서울대 한무영 교수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관리 부족 국가’다”라고 말한다. 집중호우 시 팔당댐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물의 양이 부족분과 맞먹기 때문이다. 추석 전,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비단 서울만이 아니다. 어디나 할 것 없이 전국이 온통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도로로 덮이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의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비가 올 때 빗물이 포장도로 밑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여들기 때문이다. 빗물을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단지 환경보호 차원이 아니다. 수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대단히 높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다. 🌱





SBS 뉴스추적 <현장 고발 - 불법 석유가 판친다>

최근 들어 기름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가짜석유와 면세유의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다. 석유의 불법유통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고유가 시대가 계속되면서 점 조직으로 운영되는 범죄조직까지 불법유통에 가담하면서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석유불법 유통조직을 추적하고 적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글·동세호 SBS 기자 사진 제공·SBS 뉴스추적팀

가짜 기름 왜 근절되지 않나?

심심치 않게 가짜 석유를 팔아오던 주유소가 적발됐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속은 그때에 그칠 뿐 끊임없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를 추적하고 싶었다. 길거리에서까지 팔고 있는 가짜석유의 실체는 무엇이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짜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고발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서 기획된 것이 SBS 뉴스추적 <현장고발 - 불법 석유가 판친다>였다.

그러나 수사기관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기름 불법유통의 실체를 파악하고 불법유통 현장을 찾기란 너무 힘든 작업이었다. 우선 한국석유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가짜 석유를 유통하는 주유소부터 추적하며 정보를 축적해갔다. 한편으로는 세금이 감면돼 일반시중에 나와서는 안 되는 면세유 불법 유통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갔다. 문제는 규모가 가장 큰 해상 면세유의 불법 유통현장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수소문 끝에 지난 6월말 한 제보자를 접촉할 수 있었다. 인천항에서 대형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것을 잘 안다는 전화였다. 지방에 거주하는 제보자를 만나 우선 이야기부터 들어보았다. 해상 면세유를 빼돌리는 수법과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부터 파악했다. 해상 면세유를 폐유로 둔갑시켜 배를 통해 부두로 실어오면 대형 탱크로리를 이용해 모처에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감시가 소홀한 심야시간대에 이뤄지고 있고 해경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사설부두를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해상 면세유는 농어촌에 공급되는 일반 면세유와 달리 워낙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어서 유통 규모도 컸다. 한번에 빼돌리는 양만 보통 100 톤 이상으로 액수로 따져도 억대가 넘는다는 것.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달에 몇 차례 이상 5년 동안이나 불법유통을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직감적으로 관계 당국이나 업자 간의 유착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해 조심스럽게 현장부터 카메라에 담기로 했다.

대형선박용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 현장 카메라에 포착되다

영상 취재가 쉽지 않은 항구인 점을 감안해 대형 탱크로리가 드나들만한 출입구에 카메라팀을 배치하고 몇 일을 기다렸다. 결국 밤11시가 넘어 부두를 드나드는 수상한 대형 탱크로리를 발견하고 그들을 추적했다. 해상 면세유를 불법유통하는 탱크로리였다. 대형탱크로리는 인천에서 두 시간 가량을 달려 경비가 삼엄

이처럼 불법석유가 판치는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세금 때문이다. 휘발유의 경우 소비자가격의 절반은 각종 세금이다. 결국 불법석유의 문제는 세금 탈루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한 수도권의 모처에 기름을 옮기고는 사라졌다.

며칠 밤을 이들을 추적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부두에서의 수상한 움직임을 카메라에 담았다.

해상 면세유는 일반 경유와 달리 황성분이 매우 높은 고유황 경유다. 불법 유통된 해상 면세유는 일반 경유와 섞어 자동차용 경유로 사용될 수도 있다. 해상면세유가 자동차용 경유로 둔갑하는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실험을 진행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SUV 차량을 이용해 1주일간 주행실험을 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대기오염 물질인 입자상 물질이 일반 경유보다 45배 이상 검출됐고, 황성분이 차량의 엔진을 부식시켜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값싼 기름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 당신의 차가 위험하다

가짜 석유의 불법유통도 심각했다. 가짜석유 천국이라는 대구광역시 ㅇㅇ동의 일부 주유소는 물론 길거리와 주택가까지 가짜 석유 판매 업소들이 성업 중이었다. 취재진이 일반 소비자를 가장해 차를 몰고 들어가자마자 차양막을 내리더니 즉석에서 신나를 섞은 가짜 휘발유를 넣어주었다(사진 참조). 가격은 시중의 절반 수준. 신나를 섞은 가짜 휘발유 사용으로 주변 자동차 정비소에는 한 달에도 열 대가 넘는 피해 차량이 드나들고 있었지만, 반값 기름의 유혹에 빠진 시민들은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취재진은 수도권의 한 주유소를 석유관리원과 경찰과 함께 불시에 점검해봤다. 계속되는 숨바꼭질과 거친 실랑이 끝에 채취한 기름을 분석한 결과 가짜기름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이들은 리모컨을 이용해 정상기름과 불법기름을 교묘히 바꿔가면서 주유해 단속의 눈길을 피하고 있었다. 불법기름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소비자를 속이는 가짜기름의 유통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주유소를 임대해 가짜 기름을 팔고 단기간 이익을 챙긴 뒤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을

피하는 전문꾼들이 생겨날 정도다.

도시외곽 지역에서 영업하는 주유소 가운데 다른 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기름값이 싼 주유소는 한번쯤 의심해 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최근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새벽이나 심야 단속 시간대에만 리모컨 조작으로 가까 기름을 속여 팔기도 한다.

줄줄 새는 면세유,

“SBS 때문에 면세유가 오늘 안 나오네요!”

농어민의 생계를 위해 시중가의 반값에 지원되는 농어민용 면세유도 줄줄 새고 있다. 면세유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허점을 이용해 면세유 불법유통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내수면 어업으로 생계를 잇는 경북 고령의 한 마을은 주민들이 서류를 조작해 면세유를 불법으로 공급받아온 사실이 들끓나기도 했다. 더구나 마을 주민 모두가 불법유통에 연루돼 충격을 주었다. 취재진이 이 마을을 찾았을 때도 ‘당사자들은 다들 하는데 왜 우리만 문제 삼냐며 억울하다’고 항변할 정도였다. 지난 1월 전북 부안에서는 수집책과 작업책, 운반책과 유통책등 철저하게 점 조직화된 범죄조직이 개입된 면세유 불법유통이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유통 액수만 25억 원 어치. 어민들이 출입항 신고서를 가짜로 꾸며 운행하지도 않는 어선에 쓸 거라며 시중의 반값에 공급받은 면세유를 수집책이 수집해오면, 작업책은 농가 빈 양계장에 설치한 비밀창고에서 활성탄을 이용해 면세유를 탈색한다. 이 과정 중 유통책을 통해 전국 주유소로 공급하던 점조직식 일당 일부가 적발된 것이었다. 이들은 이른바 대포폰으로 연락을 취하며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했고 분담책끼리 서로 이름도 얼굴도 모를 정도였다. 총책은 아직 수배중인 상태로 전국을 옮겨 다니며 같은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취재진이 면세유 불법유통 실태 취재를 위해 전북 지역의 한 마을을 찾았을 때는 어민들이 SBS 때문에 면세유 공급이 일시 중단됐다고 취재진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 깜짝 놀랐다. SBS <뉴스추적>팀의 취재를 눈치 챈 수협중앙회가 지역 수협에 지시해 면세유 공급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었다. 관리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취재에 응해 주었던 농협중앙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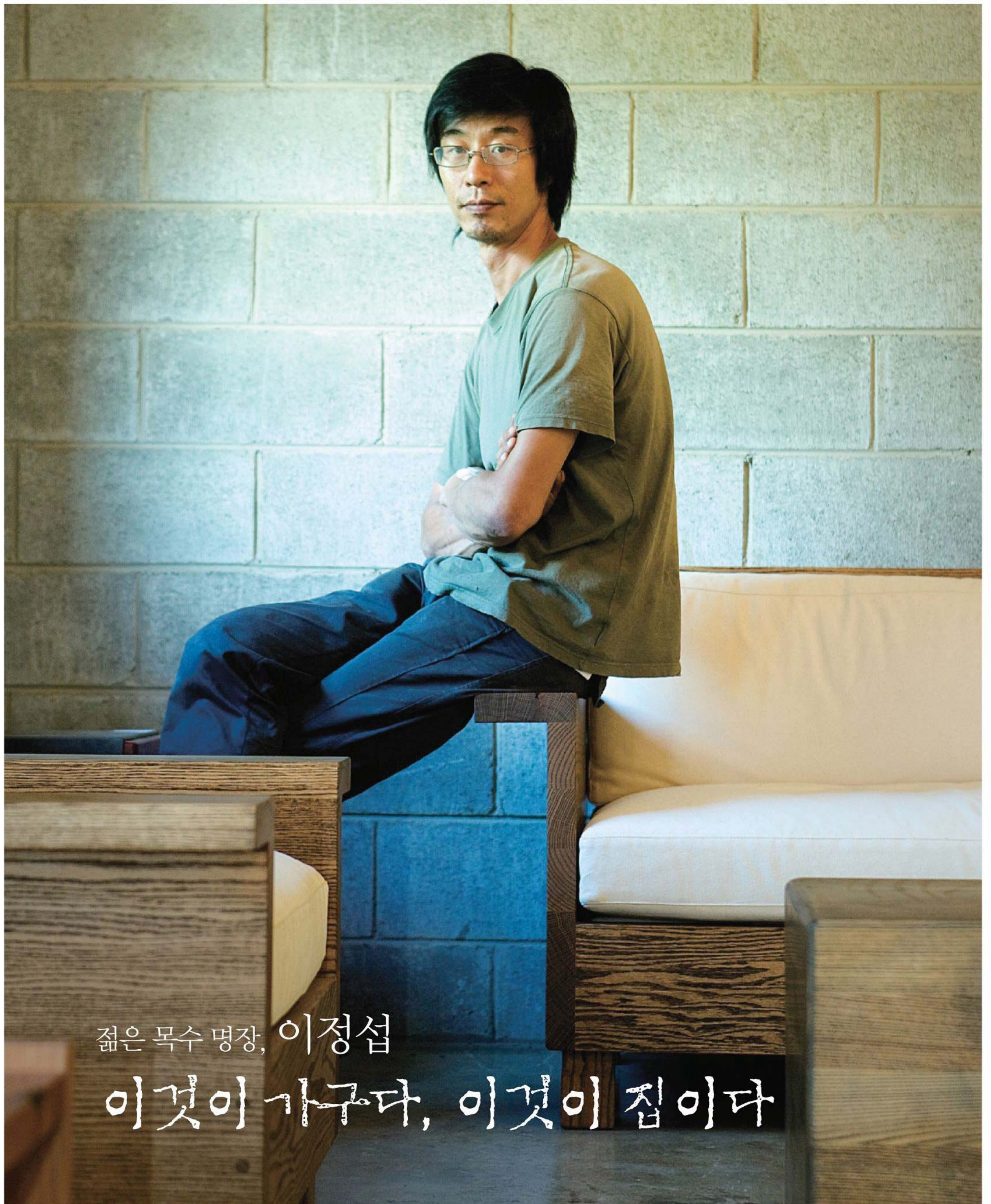
수협 이사인 민간업자가 수협조합장의 묵인 하에 수협 직영주유소의 임대운영권을 위탁받아 반값 면세유를 일반석유로 팔다 적발되기도 했다. 수협직원은 가짜 서류를 꾸며주는 데 동원됐다. 더욱 황당한 것은 불과 몇 달 전에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실행까지



살았던 수협이사에게 직영주유소 위탁운영권을 줄 정도로 수협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면세유 불법유통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조차 5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유통 액수를 줄여 사건을 축소 조작했다가 담당 경찰간부까지 줄줄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모두 면세유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그만큼 이권이 컸기 때문이다.

불법석유의 유통현장을 취재하면서 또 하나 놀란 것은 취재시점이 여름철이었는데도 값싼 난방용 등유의 사용량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난방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난방용 등유를 섞어 자동차용 경유를 만드는데 쓰이거나 불법석유로 둔갑해 사용되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주무 부처에서도 난방용 등유 제도 자체의 존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처럼 불법석유가 판치는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세금 때문이다. 휘발유의 경우 소비자가격의 절반은 각종 세금이다. 결국 불법석유의 문제는 세금 탈루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탈루되는 세금만 연간 4조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의 보다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감시자로서 소비자들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보다 값이 턱없이 싼 주유소를 보면 무턱대고 좋아하기 이전에 먼저 세 가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지, 양은 제대로 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세금을 빼먹은 무자료 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불법석유를 잘못 사용했다가 자칫하면 내차를 망가뜨리고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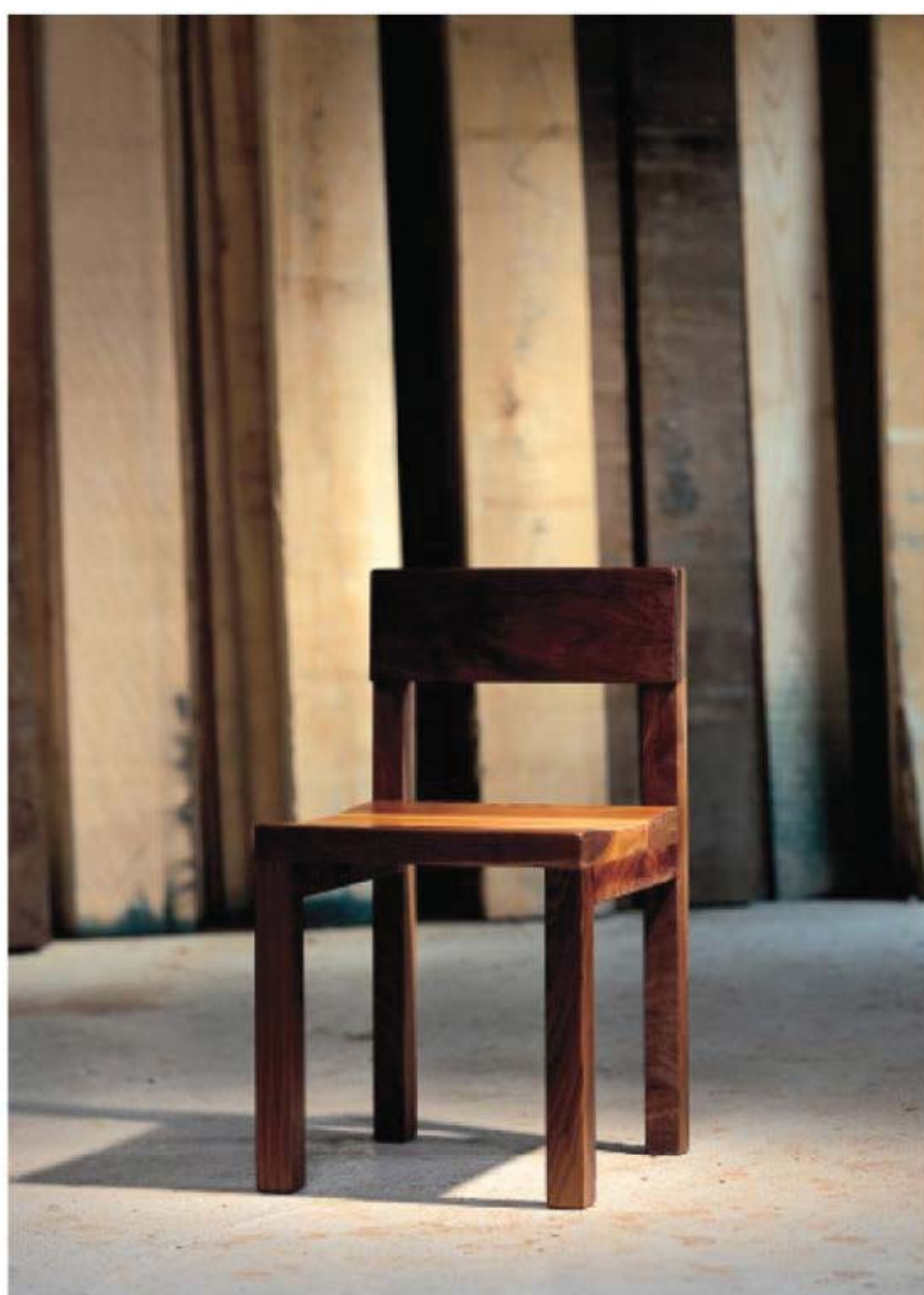
젊은 목수 명장, 이정섭

이것이 가구다, 이것이 집이다

목수 이정섭은 ‘마산고 중퇴, 검정고시, 독학으로 서울대 미대 입학, 서양화를 전공하면서 사진을 찍었고 졸업 후 한옥 짓기, 지금은 가구 만들고 집 짓는 일’을 한다. 이미 ‘뜬’ 사람인 그가 만든 가구는 ‘대한민국 상위 그룹이 좋아하는 가구 중 하나’로 전시회를 여는 족족 팔려나간다. 평범함에서 한참을 비껴간 이력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사겠지만 그가 후회 없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산 세월의 다른 이름이다. 진지하게 성찰하고 행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살고 있는 이정섭을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내촌목공소’에서 만났다.

글·팽정임 편집실 사진·조향진

“내촌면사무소와 파출소 사이 골목길을 죽 따라오면 사거리가 있고 왼쪽 길에 작게 ‘내촌목공소’ 푼말이 있다”고 목공소 측에서 알려줬다. 푼말은 정말 앙증맞게 작았고 하마터면 못보고 지나칠 뻔했다. 푼말이 가리키는 길 따라 조금 올라가자 한창 짓고 있는 여러 채의 집과 내촌목공소, 손님집, 전시관들이 들어선 내촌목공소타운이 있었다. 8년 전, 땅 값이 싸다는 이유로 북향으로 난 골짜기를 산 이정섭이 목공소 건물을 시작으로 직접 짓고 일궈낸 곳이다. 올해 마흔인 이정섭은 그동안 젊고 촉망받는 목수가 되었다. 목수라니, 예스럽다. 그래도 그는 세련된 가구디자이너보다는 목수로 불리길 원한다.



다. 좋은 재료를 써 보기 싫지 않게 만드는 가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가구로 눈을 돌렸다.

“아름다움의 원형질을 찾으려고 고민했는데 이조가구에서 보았어. 장식을 안 하면 결국 아름다움의 원형질은 ‘비례’라. 사각형 안에 기둥이 있고 봉창이 있고 뭐가 있고 등등 그런 것을 찾으려고 몬드리안도 그렇게 굵적거렸다 싶어. 그래서 미니멀리즘, 현대미술은 동양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고 봐야지.”

경상도 말 어미에 우스갯말도 간간히 섞으며 말 잘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말 습씨다. 조형의 원형질을 이조가구에서 찾은 그의 가구는 화려한 색도 없고 인공 색도 없이 나무의 자연스러움을 살렸다.

합일된 노동을 하는 목수가 만든 가구, 집

“내가 사는 집, 내가 지어보고 싶었어. 예전에는 자기 살림집 웬만하면 스스로 짓고 살았어. 제 큰아버지가 지은 집 지금까지 잘 서 있고. 누구나 집을 지었는데 자본주의가 필요에 의해 일을 분업화시키면서 비숙련 노동이 없어져 버렸어. 가구든 뭐든 기능공만 남아 있어. 분업화된 이전의 목수는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자르고 붙이는 실제 일까지 한 사람이 모두 했어. 그래서 합일된 의미의 목수, 저도 그렇게 불리길 원합니다.”

합일된 노동을 하는 목수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정섭은 한옥 짓는 것을 배웠다. 한동안 재미있었다. 그런데 같은 기둥을 50개 깎는 것, 똑같은 집을 짓는 것에 점차 재미도 시들해졌

사과맞춤으로 골조가 이어지거나 못을 박음으로써 현대에 맞게 견고함, 기능성까지 보완했다. ‘좋다, 편안하다’는 첫인상을 주는 그의 가구에 뭔가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의미 없는 장식 하나를 더 얹는 꼴이다. 그래서 그의 가구는 ‘이것이 가구다’란 말이 어울린다. 계속 보니 ‘참, 참하게 잘 생겼다, 고급스럽다’ 싶더니 이런, 나무가 말을 거는 것도 같다. 나무물성을 아는 목수가 정성껏 귀하게 다뤄 눈앞의 이 가구로 재탄생시켰구나 싶으니 감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그가 매기는 가구 값도 일리가 있다.

“3년째 만드는 가구와 일주일 만에 만드는 가구가 있다면 그 값에 맞는 디자인을 해. 가구는 라면 같은 공산품이 아니라. 사람을 초대하고, 대접할 음식을 고민하고, 재료를 사고 해서 만

든 음식은 라면과는 다르지예.”

조곤조곤하지만 단호하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자부심이다. 그는 “누구에게도 사라고 안 한다”는 영업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내촌 목공소 가구는 대한민국 부자들이 좋아하는 가구 리스트 중 하나가 되면서 어느 정도 가구 시장을 선점한 상태다. 내촌 목공소 가구를 사면 안목 있다는 소리도 듣는다. 명품을 사는 것과는 다른 가치를 그의 가구가 주는 것이다

전통을 제대로, 바로 알 때 우리 것이 좋은 것

이정섭의 가구는 쥘 스타일 같다는 평을 듣는다. 그는 “쥘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평이 나오는 연유를 아니까 별로 상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전문가들이 잘못하고 있는 ‘전통’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이조가구가 못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화재 발굴 현장에도 여러 차례 참여한 그는 “습도에 헐렁해지고 이사 가다 슬쩍 건드리면 빠지는데 하나 박아줘야죠”라며 하중 지탱하는 못을 가구든 건축이든 썼다고 한다. 그런데 왜 못을 쓰지 않았다고 알려진 것일까? 대장철물이 귀해 상



류층이 아니면 못을 못 썼고 돈 있어도 못 샀던 당시 현실을 ‘쇠 못 구해도 우리는 이렇게 해결했다’는 식으로 미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장인들, 글 쓴 사람들이 그런 말에 동조하고 유포한 것. 그는 ‘전통을 오래 묵은 것으로 쳐주는 현실’에도 개탄한다. 형편없는 목수가 지은 500년 전의 집이, 가구가, 단지 묵은 년도가 기준이 돼 버려 아름답다고 칭송 들으며 전통이 되는 현실은 냉정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수준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한옥의 대표적인 곳으로 치는 가회동 한옥은 중인 집인데 그 짧은 집에 서까래 얹고 부연까지 또 얹어예. 부석사 무량수전 정도면 서까래 얹고 부연 얹고 하면 시원한 맛이 있지예. 사람마다 다른 취향, 기호를 재해석하고 경관에 맞게 디자인하는 사람이 목수인데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것이 목수는 아니지예.”

이정섭은 대목에서 소목일로, 다시 대목일을 시작했다. 목공소 아래, 몇 채의 집을 고객의 요청으로 이대 교수와 공동 설계해 작업한 것이 그의 첫 도전이자 새롭게 진행한 프로젝트였다. 이어 최근에는 ‘내촌목공소가 짓는 집’ 두번째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며, 내년에 착공 예정이다. 그는 현대건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얻는 것이 많고, 성취감도 있는 이 작업을 당분간 계속할 계획이다. 내촌 사람, 주민 구성원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회사가 되자는 의미로 ‘내촌 목공소’라 이름 지은 목공소를 안정적인고 튼튼한 회사로 만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7명의 직원들이 내촌 목공소의 주인이 되어 노동성격이 합일된 목수로서 정성들여 만드는 가구, 집도 계속 만들어 낼 것이다.

목수 이정섭의 지난날은 이것저것 후회 없이 해봐서 아름다웠다. 이제는 벌여 놓은 일이 있고 인생 기획할 줄 아는 나이라서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는 젊다. 그리고 참 열심히 살았고 살고 있다. 그가 다루는 나무같이 쉽게 휘지 않을 그이기에 그가 하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이건 응원을 보내고 싶다. 🌱



더 투명한 세상 더 행복한 미래,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행/복/누/림

우리가 먼저	36	청렴 위인을 찾아, 청렴의 길을 묻다
브라보! 대한민국!	40	맛과 인정으로 빛은 참 좋은 '우리 떡'
생활법률 110	44	인터넷 상거래에서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법!!!
통째로 보는 책 한 권	46	전 세계의 석학들은 왜 정의에 주목하는가?





청렴 위인을 찾아, 청렴의 길을 묻다

-1박 2일의 청렴사적지 탐방 교육을 다녀와서

지난 8월 31일 아침, 국민권익위원회 빌딩 앞으로 공무원 서른여덟 명이 속속 모여들었다. “책상 위를 벗어나 옛 청백리들의 숨결과 삶의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진정한 청렴의 의미와 그 실천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이영근 부위원장의 격려사가 끝나고, 일행은 모두 뻑뻑한 일정이지만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찾자는 의지를 담아 파이팅을 외쳤다. 파이팅~!!!

글·윤혜숙 권익위 블로그 기자 사진·강진형

조선왕조 오백 년 동안 정승을 지낸 사람은 많지만 성이나 아호 뒤에 ‘정승’을 붙여 부르는 이는 네 분밖에 없다. 황 정승(황희), 상 정승(상진), 오리 정승(이원익), 맹 정승(맹사성)이 그들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학식과 덕망이 높았고 청렴을 정치와 일상생활에서 실천했던 모범적인 청백리였다. 이틀 동안 세 분을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한층 이 행사의 무게를 실어 주었다.

백성을 위한 삶이 진정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준 율곡 이이

버스가 처음 닿은 곳은 율곡 이이 선생의 유적지 자운서원. 한여름의 햇빛이 누그러진 흐린 날씨가 발걸음에 힘을 돋워준다. 이황과 더불어 성리학의 대학자로, 정치가로 존경을 받는 이이. 열세 살 진사시를 시작으로 스물아홉 살 식년 문과에 장원 급

제하기까지 모두 아홉 번에 걸쳐 장원에 뽑혀 구도장원공이라 일컬어졌다. 별시의 장원으로 뽑힌 <천도책>은 중국에까지 알려질 만큼 그의 학문적 경지는 남달랐다.

그가 정치생활에서 구현하고자 한 것은 청렴과 청빈의 선비정신이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君君 臣臣 父父 子子)는 ‘—다음’의 원칙이 그 바탕이다. 백성을 으뜸으로 내세우는 민본덕치, 언론을 활짝 열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여론정치, 정세와 맞춰 법과 제도의 유연성을 갖추려는 소통의 정치, 백성의 생활을 부유하게 하자는 그의 가르침에서 오백년을 앞선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의지를 읽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기념관을 나와 산줄기의 가족 묘로 향했다. 선산의 맨 위에는 율곡 이이와 그의 마지막 부인인 곡산 노씨의 묘가 있다. 나라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그의 십만양병설이 거부된 8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집안까지 들이닥친 왜구들을 꾸짖었던 노씨 부인은 남편의 묘 옆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일을 안 조정에서는 노씨 부인의 묘를 마지막 목숨을 끊은 그곳에 그대로 쓰라는 어명을 내렸다. 관례를 뒤엎는 묘의 위치를 두고 탐방객 간의 설왕설래는 버스 안에서 계속 이어졌다.

관습을 깬 평등의식과 함께

청백리 사상의 대표 주자가 된 황희 정승

DMZ 장단마을의 유기농 두부정식으로 배를 든든히 채운 탐방단은 명재상 황희가 말년을 보낸 반구정으로 향했다. 조선 역사상 그만큼 사랑받는 청백리도 없다. ‘방촌’, ‘삽살개 동네’라는 아호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민초로서의 삶을 자청해 살았다. 죽을 때까지 비가 새는 초가에서 몇 벌의 의복만으로 삶을 살아온 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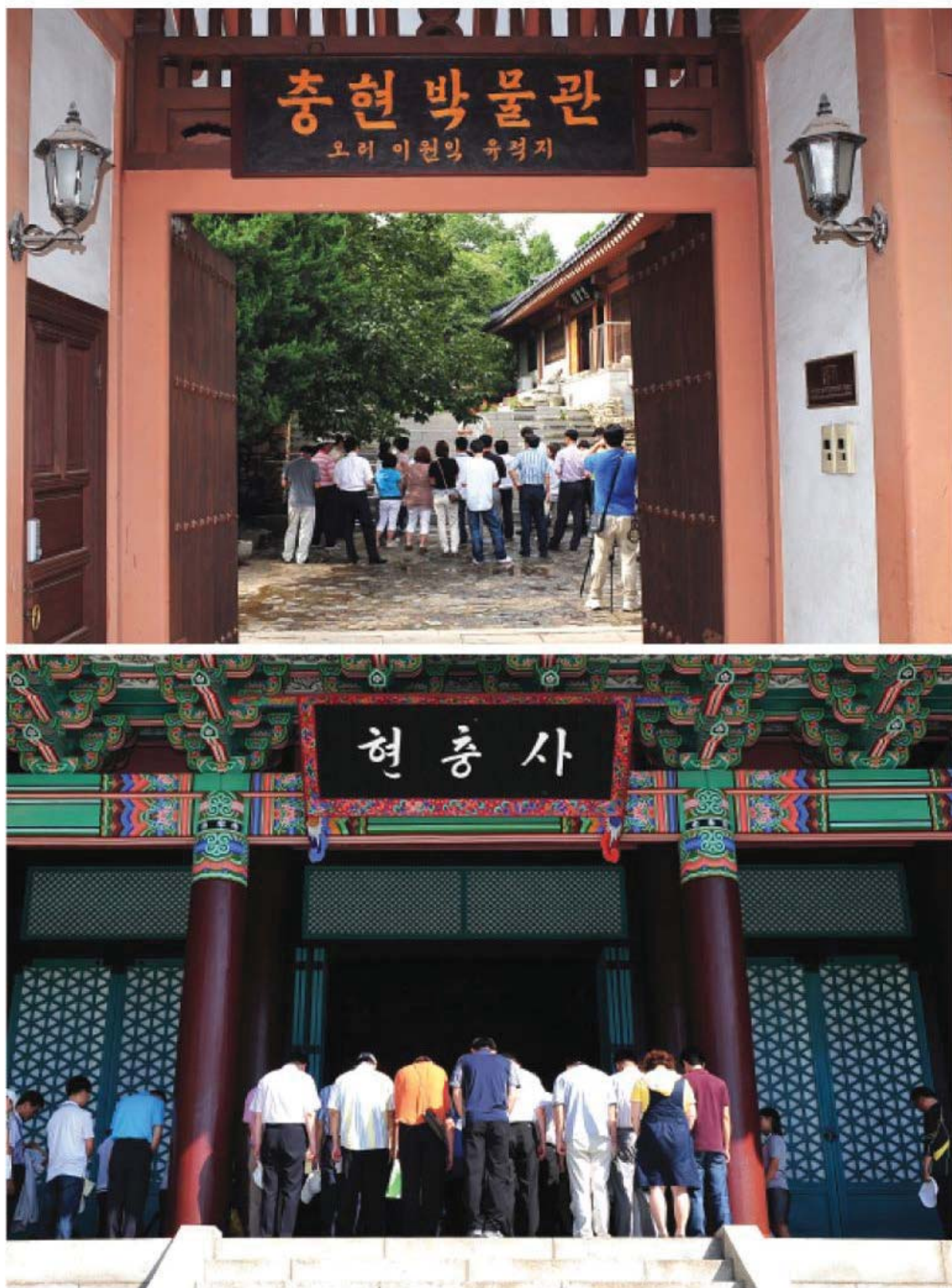


율곡기념관에서 눈여겨 본 '소통' 관련 홍보 코너



두 임금을 모실 수 없다며 두문동에 들어갔던 여말 72현 중 한 사람이었던 그는 14세 살에 복안궁 녹사로 관직에 첫 발을 내디뎠다. 두 번의 좌천, 세 번의 파직, 귀양살이 4년 등 우여곡절 많은 벼슬살이를 했지만 60년 이상 태조, 태종, 세종을 섬기며 조선 초 태평성대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임금 앞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꺾지 않는 그에게서 “청렴해야 영생할 수 있다”던 일행의 말이 너스레가 아님을 절로 깨닫게 했다. 백성의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곡식 종자를 보급하고, 각도에 뽕나무를 심도록 하여 의생활을 풍족하게 했던 것이나, 천첩소생의 천한 노비에게도 출산 전후 4개월 동안, 남편에게도 한 달간 출산휴가를 주도록 했던 앞선 인권 의식. 노비 출신의 장영실의 재능을 알아보고 제 뜻을 펼칠 수 있게 도운 황희. ‘모두 인간’이라는 한발 앞선 평등의식이 그를 명재상으로 만들었다. 바름과 의로움을 쫓고, 평생 강직과 청빈을 잃지 않았던 황희 정승. ‘우리들 몸이 없어진 뒤의 일은 단지 청렴(淸廉) 럼(廉)자 하나를 지키는 것이다’는 그의 글에서 청렴이 여전히 최고의 덕목임을 가르치고 있다.

반구정을 내려다보는 양구정에 둘러앉아 흐린 시야 속에서 북녘 땅을 건너보았다. 그 옛날 임진강을 거슬러 날던 갈매기를 벗



삼아 지냈던 말년의 황희 정승. 양지대 상량문에 ‘오직 선(善)만을 보배로 여기고 탄 마음이 없는 한 신하가 있어 온 백성이 우뚝하게 솟은 산처럼 모두 쳐다본다. 아름답구나! 이 양지대란 이름은 시경(時經)의 호인(好人)이라는 뜻을 취했다’고 적혀 있다. 황희 정승의 사당과 현손 황효현의 부조묘를 지나 방촌기념관까지 둘러보고 나오니 벌써 여름 한낮이 저만치 물러나 있었다.

결벽증에 가까운 청렴으로

백성을 흠뻑 사랑한 오리 정승 이원익

첫날의 마지막 탐방 사적지는 광명시 주택가에 있는 이원익의 고택이었다. 길손을 마중 나온 종부의 단아함이 고택을 많이 닦아 있었다. 조석을 잊지 못할 만큼 빈한한 살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인조가 직접 지어주었다는 관감당, 선생이 거문고를 탔다던 탄금암, 사백 년의 수령만큼 청청한 측백나무, 사당인 오리영우, 후학을 가르치던 충현서원지, 최근 복원된 풍옥대와 삼상대, 그의 후손들이 쓰던 물건과 오리정승의 영정, 문집과 유물이 전시된 충현박물관이 산자락 아래 고즈넉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종의 12번째 아들 익령군의 4대손으로 선조, 광해군, 인조 3

대에 걸쳐 영의정승을 지낸 그는 오동나무가 많던 오리마을에서 파운 ‘오리’라는 호칭으로 오리 정승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가마보다 황소를 타고 다녔던 정승으로 유명하다. 허물어진 집을 고칠 준비를 하던 중에 호조판서로 임명되자, 나라 살림을 맡은 이로서 혹 오해를 살까 염려해 미리 준비해둔 나무를 썩혀 버렸다. 뒷말날 일도 꺼려했던 그의 청렴은 가히 결벽에 가까웠다.

연이어 오리 이원익 기념관에서 열린 두 시간의 특강. 주제는 황희 정승과 이순신 장군에게서 배우는 바람직한 공직자 상이었다. 옛 청백리를 만나고 온 터라 모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 참가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몸을 닦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오리 정승이 손자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을 들어 첫날의 소감을 밝혔다. 청렴은 욕심을 줄이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과 같이 남의 처지를 읽어내는 배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닐까.

무쇠와도 같은 강직함으로 충절을 지킨

시대의 영웅, 이순신 장군

기상청의 예보와는 달리 이튿날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이순신 장군을 만나러 아산 현충사로 가는 길. 그의 충직함을 닮은 소나무들이 숲길 한가득이다. 원래 이곳은 장군의 처가가 있는 곳. 해마다 탄신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국에서 벌어지는 것만 봐도 장군의 애국충정을 닮으려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다. 뛰어난 자질과 인품에도 쉽게 벼슬길이 열리지 않았던 장군은 사고로 인해 첫 무과시험에서 낙방한 후, 사년 후에야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문화해설사 송대성 과장은 청렴에 얽힌 장군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객사의 오동나무로 거문고를 만든다며 배려하자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니 사사로이 벨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던 일, 장군의 화살통을 부러워하는 상관에게 “전통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로 더러운 말을 함께 듣게 될까봐 두렵다”며 완곡하게 거절했던 일화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되짚어보게 했다.

현충사에서 장군을 뵈 후, 장군이 말 타기를 연마했다던 방화산 아래 화살터로 향했다. 장군이 현충사로 모셔지기까지의 일을 들으며 산바람에 땀을 식혔다. 시기와 모함 속에서도 누구를 탓하지 않고, 제 직분에 충실했던 그의 강직함, 두고두고 남을 듯싶다.

가마 대신 검은 소를 택하며 청백하게 절조를 지킨 맹사성

맹사성의 고택인 맹씨 행단에 내린 것은 점심쯤이었다.



원래 최영 장군이 살았던 이곳은 아버지 맹희도가 은둔하며 후학을 모아 글을 가르쳤고, 맹 정승이 심은 두 그루의 은행나무에서 ‘맹씨 행단’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는 고려의 명장 최영 장군의 손녀사위이기도 하다.

고택에서 구괴정으로 올라가는 좁은 산길에는 한낮의 해를 받으며 감자, 옥수수가 익어가고 있었다. 이 정자는 맹사성이 당시 영의정이던 황희, 우의정이던 권진 정승과 함께 정사를 논하며 함께 느티나무 세 그루씩 아홉 그루를 심은 것에서 심괴정으로, 세 정승이 만났다 하여 삼정당이라고도 불린다. 고택에 내려오니 맹정승의 21대손이자 이 고택의 주인인 맹건식 씨가 사당인 세덕사의 굳게 닫힌 문을 열어 주었다. 평상시에는 열리지 않는 문이었다니 주인의 배려에 다들 감동한 눈치였다. 이 사당에는 여말 72현 중 한 분이었던 할아버지 맹유, 고고한 선비였던 아버지 맹희도, 그리고 맹사성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충신과 예로써 대접함을 文이라 말하고, 청백하게 절조를 지키는 것을 正이라 한다.” 세종대왕은 그의 청렴함을 기려 문정공이라는 시호를 내리며 그 이유를 밝혔다. 정승이라는 지위 때문에 밀려드는 청탁을 우려하여 방문을 닫고 지내고, 가마보다는 검은

소를 타고 피리를 불던 풍류남아였던 맹사성. 이름에 걸맞게 작고 소박한 기념관에서 나오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큰 뜻을 담는 데 그릇의 크기는 문제될 리 없다는 것이었다.

시대가 다르면 사람도 달라진다. 당연히 청백리나 청렴의 의미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청렴의 기본이 아닐까?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1박 2일의 청렴사적지 탐방에서 마음에 담아 온 배움이였다. 🌍



맛과 인정으로 빛은 참 좋은 ‘우리 떡’

떡이야, 꽃이야? 요즘 떡 가게 진열장에는形形色색 고운 빛깔과 앙증맞은 모양의 떡이 가득하다. 예술작품처럼 맛깔스러운 자태를 뽐내니 기품 있는 선물로도 인기다. 또한 떡은 쌀, 밤, 콩, 대추 등 100% 천연재료를 사용해 대표적인 웰빙 음식으로 꼽힌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은 생활의 지혜를 일러준다. 예나 지금이나 풍부한 영양과 정성어린 손맛, 넉넉한 교훈으로 눈과 입과 삶을 즐겁게 해주는 떡, 우리의 떡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김지영 푸드스타일리스트·최혜림 사진·조항진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 떡을 먹었을까. 낙랑유적으로 추측해보면 원시농경 때부터라고 한다. 이 당시에는 피, 기장, 보리, 밀과 같은 곡물을 맷돌에 갈아 시루에 찌 먹었다. 원삼국 시대에 사용하던 토기 시루가 발견됨에 따라 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시루로 떡을 찌 주식으로 먹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기도 한다. 즉 주식으로 밥보다 떡을 먼저 먹은 것이다. 이후에도 떡은 비록 주식의 자리는 내주었지만 여전히 명절, 백일이나 돌, 또는 생일, 회갑 등 잔칫날에는 빼놓을 수 없는 전통음식으로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국가대표 웰빙 음식

먼저, 떡의 영양을 알아보자. 떡은 주로 멥쌀이나 찹쌀, 또는

다른 곡식을 찌서 찜거나 가루 낸 것을 원료로 해 찌고 굽고 빻어 만든 음식을 통칭한다. 일반적으로는 쌀을 주재료로 사용하지만 감자전분이나 기타 곡물 등 각종 부재료를 이용하기도 한다. 떡은 영양의 보고다. 주재료인 쌀은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이 풍부하다. 게다가 부재료로 사용하는 콩·팥·녹두 등에서 단백질을, 채소나 과일에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호두와 잣 등 견과류에서 지방을 얻을 수 있다. 당귀·승검초·밤·대추·구기자 등 한약재도 들어간다. 또 떡에 고운 색을 내기 위해 쓰는 재료도 치자, 단호박, 검정깨 등 인공색소가 아닌 자연의 산물을 이용한다.

한국전통음식연구원 윤숙자 소장은 “김치 다음으로 세계화가 가능한 우리 전통음식이 떡”이라며 “우리나라의 떡은 서양의 빵이나 케이크처럼 버터나 우유, 베이킹파우더가 들어가지 않은 담백한 건강식”이라고 강조했다. 흔히 떡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보기에 양이 적어 보이므로 자칫 과식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분량을 적당히 먹으면 밥알이 곱게 부수어져 있기 때문에 소화는 밥보다 잘 된다고 전한다.

찐 떡, 찐 떡, 지진 떡, 삶은 떡

우리나라의 떡은 300여 종이 넘는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 크게 네 가지다. 찐 떡, 찐 떡, 지진 떡, 삶은 떡이다. 찐 떡의 대표 주자는 시루떡이다. 시루떡은 잡귀잡신을 물리치는 고사에 주로 쓰인다. 찐 떡은 떡살에 갖은 문양을 새긴 절편이 있다. 주로 꽃문







양, 줄무늬, 길상 문양 등 한국의 전통적인 무늬를 새겼다. 단오에 만드는 수리치절편은 수레바퀴 모양 떡살을 찍어 장수를 기원하였다. 설날 그믐날 마당에서 떡을 치는 소리와 냄새는 새해를 알리는 풍경으로 알려졌다. 지진 떡은 진달래꽃, 배꽃, 국화꽃 등을 전병에 올려놓고 기름에 지진 것이다. 삶은 떡 경단은 돌이나 혼인과 같은 잔치에 놓는 필수적인 음식이다. 찹쌀가루로 밤톨만한 구를 만들고 계핏가루, 깨, 잣, 팥, 석이채, 대추채, 밤채 등을 고물로 문힌다. 돌상에는 찰수수 경단에 팔고물을 문힌 수수경단을 올려놓고 악귀를 물리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철따라 먹는 세시절식의 꽃 ‘떡’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제철 재료 음식인 세시절식 문화가 발달했다. 그중에서도 떡은 세시절식의 꽃이다. 설날엔 가래떡, 음력 정월 보름날은 약식을 먹었다. 삼월 삼짇날에는 두견화전을, 한식에는 어린 쑥을 넣어 절편을 만들거나 시루떡을 찐

다. 단오에는 수리취떡을 해 먹는다. 수리취란 국화과의 다년초인데 이 잎을 넣어 만든 시루떡이 수리취떡이다.

음력 6월 유두일에는 쌀가루에 막걸리를 넣어 발효시켜 부풀린 후 실백과 대추 등을 얹은 증편, 일명 술떡을 먹었다. 칠석날의 백설기는 여름 떡 중의 으뜸이다. 고명이나 다른 것을 안 쓰고 흰쌀로만 만들어 아이들 간식이나 비상식량으로 지금까지도 인기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에는 송편을 빚고, 깊은 가을 중앙절에는 국화전을 먹고, 10월에는 무시루떡, 11월 동지에는 골무떡과 호박떡을, 12월에는 온시루떡을 먹었다. 사시사철 가가호호 다 채로운 떡을 즐긴 것.

팔도팔색 떡 문화

우리나라는 또 팔도팔색 떡 문화가 발달했다. 지역별로 생산되는 농작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 지방에는 여러 가지 색상과 모양을 내어 만든 색떡, 여주산병과 수수지



지미, 그리고 개성조랭이 떡이 대표적이다. 충청도 지방에서는 꽃 모양의 꽃산병과 약편, 호박떡, 도토리떡이 유명하다. 강원도 지방에서는 감자를 중심으로 한 발작물과 산채를 이용하여 만든 떡이 발달했다. 메밀전병과 감자떡, 도토리송편 등 소박한 맛이 특징이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멥쌀가루에 홍시를 섞어 만든 상주설기와 밀양경단, 호박범벅과 꽃감화전이 유명하였다.

‘호남에 가뭄이 들면 전국이 굶어 죽는다’는 전라도는 음식문화가 풍요롭다. 떡도 예외는 아니다. 감시리떡, 전주경단, 보리떡 등 국내 최고의 곡물 산지답게 감을 넣은 사치스러운 떡부터 약초로 만든 건강 떡에 이르기까지 널리 전해지고 있다. 제주지방은 햇메밀로 만든 좁쌀시루떡이 유명하다. 이밖에도 산세가 험한 평안도 떡은 뽕떡, 찰부꾸미, 강냉이골무떡이 있다. 대륙적이고 진취적인 지역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매우 크고 소담스럽다.

황해도는 곡창지대가 많아 곡물 중심의 떡이 발달했다. 푸짐하고 큼직큼직한 큰송편, 연안인절미 등이 있다. 함경도는 지형적



여건이 험준한 산악 지대여서 수수, 귀리, 메밀 등 잡곡 중심의 빈약한 농경이 이뤄졌다. 함경도 인절미, 달떡 등을 즐겨 먹었다.

떡으로 배운 쫄득쫄득한 삶의 지혜

떡에 관한 비유나 속담도 넘친다. ‘이게 웬 떡이니!’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뱉는 탄성에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인정 많은 속담에도, ‘짠 게 비지떡’이라는 생활의 지혜에도 모두 ‘떡’이 주인공이다. 그 뿐인가. ‘보리개떡으로 찰떡인심 낸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속담이 떡을 통해 지혜를 감칠맛 나게 일깨워주었다. 일용할 양식은 물론이요 특별한 날에 빠질 수 없는 귀한 초대 손님이자 영혼을 살찌우는 마음의 양식이 되어준 것이다. 그렇다면 누대로 우리의 밥상과 일상을 지킨 떡을 이렇게 말해도 좋지 않을까. 우리민족을 키운 팔할은 떡이었다고. 🌾

인터넷 상거래에서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법!!!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통신판매에 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도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내용 중 기본적인 것을 미리 알아 두면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 · 임대윤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

인터넷 상거래 시, 우리 소비자가 손해 보지 않으려면?

대금 결제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만일의 경우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면, 현금 결제보다는 신용카드 등 전자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격이 20만 원이 넘는 물품을 할부로 구매할 때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판매자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신용카드 업자에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변권을 행사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법은 사업자에게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소비자 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 체결 전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그러한 문제를 미연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표시·광고 또는 교부 등이 된 사항 중 위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철회 등은 7일 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로 인하여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물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화 등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청약 철회 등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선,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 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거래하려는 사이트에 그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정보통신사업진흥원의 'eTrust 인증마크'를 받은 업체라면 보다 더 믿고 거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매 물품에 대한 청약 철회 방법 및 이에 대한 법 규정은?

이러한 청약 철회 등은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청약 철회 등을 하게 되면 소비자는 공급 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 비용은 '청약 철회를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재화 등이 다른 경우 등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인터넷쇼핑몰업의 피해 유형에 따른 보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상의 요령 아닌 요령 한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래

피해 유형	보상 기준
1)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 체결	- 계약 해제
2)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3) 계약된 인도 시기보다 지연 인도	
-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 기타(지연 인도로 인한 불편 야기 등)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4) 배송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	- 청구 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불
5) 부당한 대금 청구	- 계약 이행 또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6) 기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비고 : 계약 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불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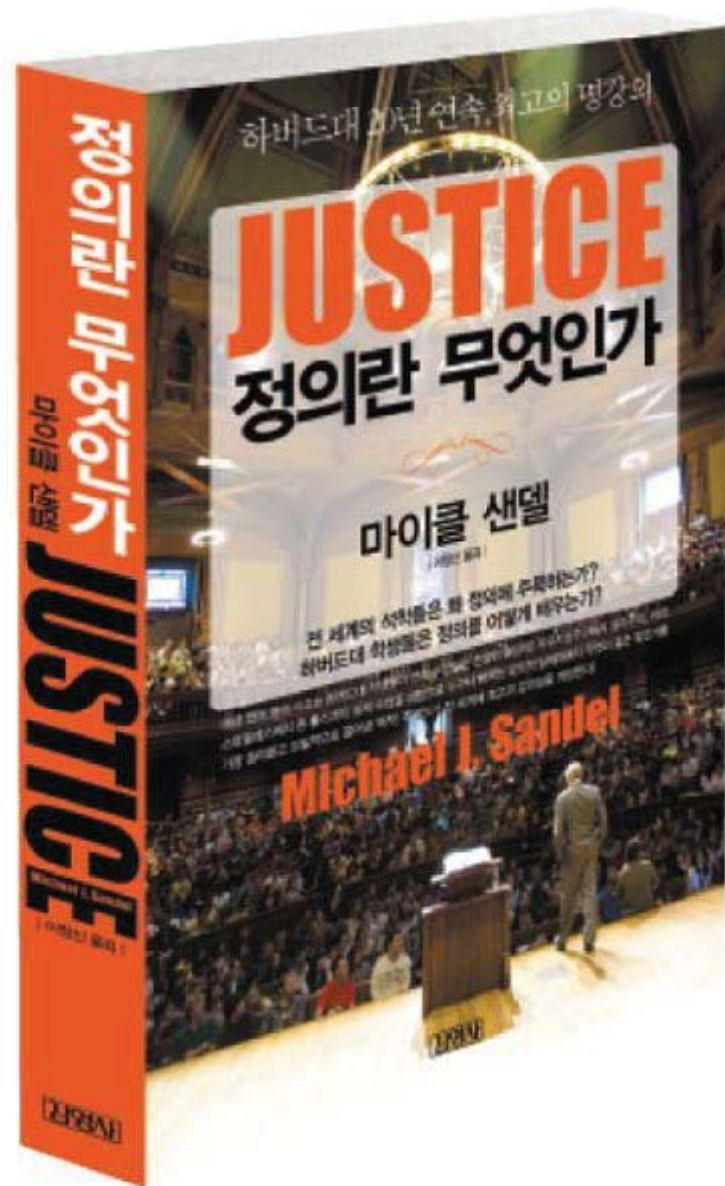
하고자 하는 사이버몰의 고객 게시판 등을 거래에 앞서 날짜별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게시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거나 게시판에서 고객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쇼핑몰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물품 경매 및 국제 전자상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한편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가령 인터넷 경매 등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상대방의 신원이나 신용도를 알기 어려우므로 거래 시 상대방의 주소, 전화번호, 결제계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전자상거래의 경우 국내 거래보다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문 시 고객번호, 주문번호, 거래명세 등 관련 정보를 인쇄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가령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 등 유사시 카드회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들로는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http://www.ecmc.or.kr>),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등이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런 곳에 문의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석학들은 왜 정의에 주목하는가?

– 바로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선명하게 되돌아볼 시기

허튼 농담 하나.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정의가 없다. 제목이 던진 질문에 대해 똑 떨어진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책을 덮은 뒤 독자에게 남는 답은 ‘잘’, 이 한마디다. 스스로 ‘잘’ 고민해서 ‘잘’ 해결하라는 얘기다.

글 · 조태성 서울신문 기자 사진 · 김영사(출판사) 제공



‘잘’, 이 한마디에 한국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출간 녀 달도 채 안되어 40만 부가 나갔고,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8주 동안 1위를 차지했다. 샌델 교수의 방한에 맞춰 진행된 8월 20일 경희대 특강에는 무려 4000여 명의 청중이 몰렸다. 남는 질문은 하나다. ‘잘’, 이 한 단어가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먹혀들었는가.

그다지 신선할 것 없는 윤리학의 주제, 정의 왜 화두인가?

사실 철학 가운데 윤리학에 관심 있었다면 책 자체가 놀랍다고 하긴 어렵다.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어떤 선택이 도덕적이고 가치 있는 것이냐는 따위의 ‘고약한’ 질문을 던져 놓고는 사람들이 고민하느라 머리 쥐어뜯는 것을 즐기는 게 윤리학이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것이다. 기존 윤리학은 ‘사고실험’적 성격이 짙다. 가령, 난파한 선박에서 10명이 뗏목을 잡고 살아남았는데 2명을 바다에 버려야 뗏목이 침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다. 2명을 던져서 8명이 살아남으니까 2명을 버린다고 답한다면, 질문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5명을 버려야 한다면? 5명을 살리기 위해 똑같은 5명을 죽이는 경우는 용납되는가라고 묻는다. 다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답한다면, 4명을 살리기 위해 6명을 버려야 한다면, 3명을 살리기 위해 7명을 버려야 한다면, 하는 식의 질문이 반복된다. 눈치 빠른 사람은 금새 이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칙에 대한 얘기란 점을 알아챌 것이다. (1강 ‘옳은 일 하기’ 中 ‘철로를 이탈한 전차’)

그런데 이런 사고실험은 학자들에게 흥미로울지 몰라도, 일반 청중들에게 재미가 없다. 그런 극한 상황을 자기 일처럼 여길 리 없고, 실제 그런 일이 닥친다면 모여 앉아 정겹게 토론할 리 없다. 일단 뗏목부터 부여잡기 바쁠 테니까. 샌델 교수의 장점은 여기에서부터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일어날 법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뽑아내 토론에 부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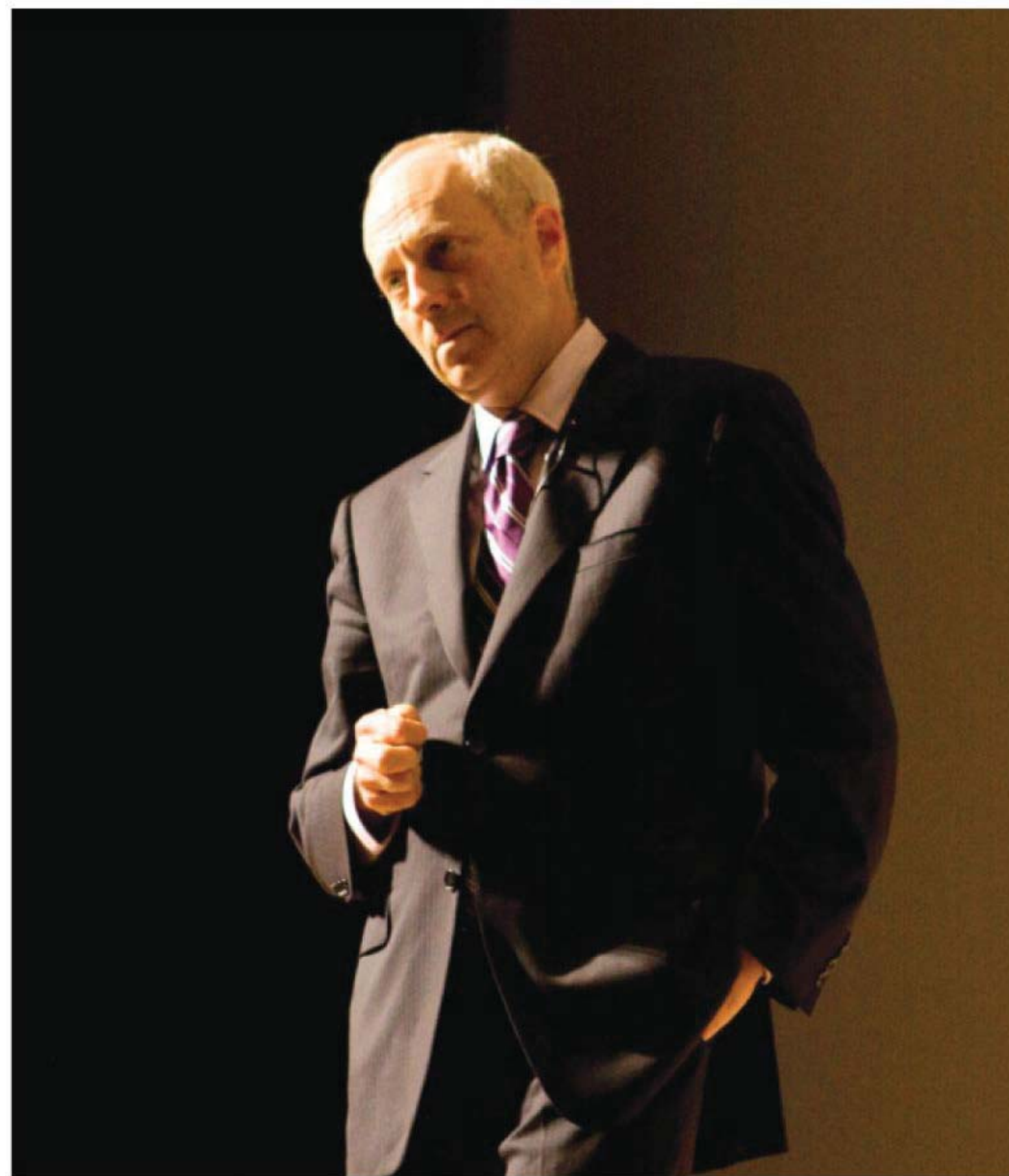
우리의 삶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찾게 되는 ‘정의’의 문제

가령 종부세(부유세든, 누진세든 뭐든 좋다)를 예로 들어 보자. 억울하다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그냥 강남에 집 한 채 마련해 평생 살았을 뿐인데, 마치 꿈수나 씨댄 부도덕한 졸부 취급하면서 세금을 내라 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는가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반론도 가능하다.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 수도의 대단위 개발지역에 집을 사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는 그런 행운을 당신만 누려야 하느냐고. 그런 개인적 행운 뒤에는 박정희 정권 이래 정책적으로 추진된 강남개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냐고. 따라서 의도치 않았더라도 그런 정책의 덕을 본 행운을 누렸다면 그 행운의 일부를 세금으로라도 환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3강 ‘자유지상주의’ 中 ‘마이클 조던의 돈’)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보자. ‘이건희’가 일류 기업을 일궈낸 것은 오직 개인의 탁월한 능력 때문인가.

개인이 지닌 성실과 열정 같은 미덕을 폄하하지는 게 아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이를 가능케 하는 공동체라는 조건과 기여가 있었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샌델은 자유주의자들이 신성시하는 ‘독립적 추상적 개인’ 대신 ‘연고적 자아’(encumbered self)를 내세운다.

‘정의’ 개념의 재정립을 위해 마이클 샌델이 인용한 ‘공동체주의’

샌델은 1980년대 초부터 존 롤스의 정의론 비판으로 이름을 얻은 정치학자다. 정의를 고민한 것은 좋으나 ‘자유주의적 개인’에 기반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 뒤, 연고적 자아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내세운 것이다. 이 부분이 궁금하면 케네디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의 종교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10강 ‘정의와 공동선’의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여기서 샌델은 미국의 리버럴(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진보’)들이 종교와 윤리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적인 문제로 축소해 지워버리는 케네디식 자유주의 해법에 안주함으로써, 보수 우파들이 종교와 윤리 문제를 독점토록 한 것은 실수라고 비판한다. 미국 주류 정치학자임에도 ‘종교와 윤리 문제는 좌파의 새로운 지적 자원’이라 주장하는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영문학자 테리 이글턴식 주장을 내놓은 셈이다.

이번 샌델 열풍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공동체주의를 보수주의로 받아들이는 한국적 현실에 일정 정도 균열이 생겼다는 점이다. 출판사가 출간기념회를 열면서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밀실의 제국’ 저자) · 금태섭(변호사,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칼럼니스트) · 우석훈(성공회대 교수, ‘88만원 세대’ 저자) 등 소위 진보 인사들을 초청한 것이나, 이를 두고 한 보수 언론에서 “샌델은 애국심이나 가족 배려 등을 중시하는 우파 입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좌파적으로 오독(誤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불만을 토한 것이 대표적 예다.

확실히 공동체주의가 내세우는 연고, 가족, 공동체 같은 개념은 우파의 주제다. 그러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 밀어주는’ 학연, 혈연, 지연의 힘이 막강한 한국 사회에서 이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우리 우파는 이런 문제점에서 자유로울까.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 일이나, 이를 계기로 온라인 세상에서 ‘똥돼지’(낙하산으로 기업이나 대학에 들어간 고위층 자제들을 가리키는 인터넷 은어) 얘기가 나도는 것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공정한 사회’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다시 샌델의 답 ‘잘’로 돌아가 보자.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린 공정하다’고 목청을 키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잘’ 풀어 가느냐다. 샌델도 아마 한국이 내놓는 답이 궁금할 것이다. 샌델 교수가 진행하는 하버드대 최고 인기 강의 ‘정의’에 한국의 사례가 오를 수 있기를 기원한다. 🌍

ACRC News



올해 말까지 용인 고기터널 방음벽 보강 설치 완료 예정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1시 용인시 동천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홍현선 상임위원 주재로 마을주민 대표와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등 관계 기관이 모인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방음벽의 보강 설치를 합의 하였다. 서울과 용인을 잇는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2005년 10월 착공해 2009년 7월 개통됐지만, 이중 용인시 고기터널 구간의 마을주민들이 교통량 증가로 인해 생긴 공명음과 파열음 등의 소음으로 스트레스와 거주 불편을 호소하며 지난 6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해 관계자들과 현장 조사, 수 차례의 실무조정회의를 실시해 마을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가 나서 올해 말까지 서울에서 수원방향의 외측 방음벽과 양 방향의 내측 방음벽, 소음 감소기 등을 보강 설치하는 내용의 합의를 성사시켰다.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 KBS와 연계해 반부패 심포지엄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공정한 사회,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청렴문화 실천방안'을 주제로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 KBS와 연계하여 서울 중앙우체국(POST TOWER) 대강당에서 <반부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각계 대표들 약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를 조기에 뿌리내리고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이번 심포지엄은 제1부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 확립 방안, 제2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부패 친화적 접대문화 개선방안으로 구분해 진행되었다.

이영근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반부패 인프라를 제도화하고, 시민사회는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시하며, 기업은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공동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반부패 청렴문화가 조성된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개발센터장은 횡령, 뇌물 등 전통적인 형태의 부패행위 외에 향응·접대 등에 대해서도 부패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베트남 고위 공무원 대상 '반부패청렴 정책 노하우' 전수

베트남 중앙 감찰단 소속 고위 관리 20여 명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반부패 제도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9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청사를 방문하였다.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국민신문고를 시연하고, 110콜센터를 견학하였다.

이들은 지난 8월 29일 입국 후, 그동안 권익위가 제공한 '반부패청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한국의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받았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 행동강령과 반부패 시책평가, 부패신고자를 보호하는 각종 '신고 보호보상 제도' 등에 대한 교육연수를 받았다. 권익위는 반부패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렴도 평가 제도를 인도네시아·부탄·태국·몽골에 지원한 바 있다. 향후에도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보상,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등 한국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격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남 화순, 함평, 영광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9월 29일 화순군청, 9월 30일 함평군청, 10월 1일 영광군청으로 출동했다. 이번 화순, 함평, 영광지역 상담반은 농림·도로·교통·산업/환경·복지노동·건축·재정세무·민/형사 등 분야별 조사관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조사관들이 지역 농민, 상공인 등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해소하는 데 힘썼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였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였다. 또 주민단체·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안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는 금년 들어 지난 8월까지 전북, 충남북, 강원, 경기도, 경남, 경북지역의 22개 시·군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며 현장 합의 237건, 고충민원 접수 151건, 상담 안내 664건 등 총 1,052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다.

편집 후기

이번 호 <국민권익>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국민권익>은 독자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환영합니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11월 10일)

Quiz+Quiz

	1		2	7
3	5	9		
6				10
		8		

세로

- 임금이 거주하는 집, 같은 말로 궁궐
- 이원익, 태종의 12번째 아들 익령군의 4대손으로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영의정승을 지낸 그는 오동나무가 많던 □□마을에서 따온 '□□'라는 호칭으로 □□ 정승으로 잘 알려져 있다.
- 우리나라는 팔도팔색 떡 문화가 발달했다. 지역별로 생산되는 농작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 일례로 경상도 지방에서는 맷쌀가루에 홍시를 섞어 만든 □□설기와 밀양경단, 호박범벅과 꽃감화전이 유명하였다.
- 해안가에 높이 솟은 산이 푸른 파도와 어우러져 □□을 연출한다.

가로

- 국민들의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고충민원 해결과정을 소개하고,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고자 KTV(한국정책방송)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기획하여 방송 제작하게 된 방송 프로그램, <현장출동, □□속으로>.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결성된 'G20 □□□□'는 비유하자면 지구촌 유지 모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협의기구라는 성격이 강했으나, 2009년 9월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후 세계경제 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되었다. 2010년 11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5차 G20 □□□□가 개최될 예정이다.
- 권익위의 추진 아래,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발된 대학생 청렴 □□은 20개 팀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6개월간 지역 맞춤형 청렴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 60년이 넘도록 축산폐수 악취 및 수질오염 민원이 끊이지 않던 전북 익산 왕궁 축산단지(170만㎡)가 정부 예산 1천여 억 원이 투입돼 현대화된 □□□□마을로 탈바꿈된다.

지난호 퀴즈 정답

	1		2	7
	청		부	산
3	소	럼	영	산
	수		암	
6	서	장	대	
	원		8	불
			모	지

- ※ 낱말 퀴즈의 정답을 독자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 퀴즈에 응모하신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고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 베트남 통일을 이끌어낸 지도자 호찌민이 아껴 읽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울기' 편에 나오는 글귀가 이 시대에 울림을 주네요. 최근 공직자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이 큰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청렴한 사회 건설에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숙 씨 (경기도 남양주시)

- 청렴윤리의식 확산과 공직사회에서의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논술, 청렴에세이 공모전이 매년 실시되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렴논술대회 최우수작을 읽으면서 아직 어린 학생이지만 주관 이 뚜렷하고 확실한 청렴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조달훈 씨 (광주광역시 북구)

-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뿐 아니라 국민들도 의식을 개선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하고 고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듯합니다! G20이 열리는 지금뿐 아니라 쭉~ 청렴에 대한 의지가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ID 지니~~ (권익위 블로그 중)

- 최근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버려진 침대 속의 낡고 녹이 손 스프링을 가져다 침대를 제작하는 업자가 PD에게 말하기를 자기 대신 반찬을 재사용하는 음식점 업주들이나 취재하라고 역성을 내더군요. 혹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분노하면서 자신의 허물은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금의 거대한 부정직한 사회를 만든 것이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ID 나무나루 (권익위 블로그 중)

- 감자캐기 봉사. 봉사하러 가신 거지만 정말 즐기며 하시는 듯한 모습에 감동받고 갑니다. :) 진정한 봉사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실감나는 순간이네요. 봉사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ID xiushan(권익위 블로그 중)



G20 SEOUL SUMMIT 2010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10년 11월 11일~12일,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

세계경제의 미래를 위해 주요국가의 정상들이 대한민국에 모입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높은 시민의식이 세계와 만나는 자리입니다.

G20 정상회의의 진정한 성공은 남을 배려하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을 더 큰 대한민국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표지 일러스트 · 함서정

한가위가 지난 지도 벌써 한참,
 풍성한 가을의 기운은 무르익다 못해
 활활 타오르려 합니다.
 온통 산에 들에 심지어 길 옆 가로수까지
 맛깔나게 익은 갖가지 열매들…….
 하이얀 캔버스에
 가을빛이 그려내는 노랑고 붉은 색,
 청명한 하늘이 그려내는 그 쪽빛 기운.
 짧지만 깊은 그 秋의 향을 따라잡으려,
 누군가와 함께 떠나는 가을소풍 어떠신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단풍보다 붉은 열정으로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한발 더 앞장서겠습니다.

